어사용의 旋律分析

—梵唄(魚山) 旋律과 關聯하여—

白 一 亨
(서울大 音大 助敎)

《目 次》

Ⅰ. 序
Ⅱ.1. 어사용의 語意 및 그 사회적 기능
2. 어사용 旋律의 특징
3. 어사용과 梵唄旋律의 比較
4. 어사용과 土俗民謠旋律의 比較
5. 어사용의 사설붙임법
Ⅲ. 結

Ⅰ. 序

本稿에서는 魚山(梵唄)과 '어산요'를 비교연구해봄으로써 현재는 佛敎儀式音樂과 土俗民謠라는 전혀 다른 두장르의 음악으로 存在하고 있는 것들의 상호관련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따라서 嶺南地方의 10개郡[1]에서 採集된 어사용과 八公山制 梵唄[2]를 硏究對象으로 限定시켰으며 또한 어사용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비치되어 있는 嶺南地方 어사용을 필자가 採譜한 것과 『한국의 민속음악』 경상남도편[3]에 실린 樂譜들을 八公山制 梵唄와 比較·分析하는 方法을 통해서 어사용이 지니고 있는 선율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1. 어사용의 語意 및 그 사회적 기능

'어사용'이라 하면 嶺南地方에서는 산에서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면서 부르거나 혹은 나뭇짐을 옆에다 벗어놓고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부르는 曲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일명

(1) 거창군, 함양군, 창령군, 의령군, 밀양군, 양산군, 울주군, 하동군, 김해군, 남해군 以上 10개군.
(2) 졸고, "梵唄 八公山制에 對한 硏究"(서울大 석사학위논문, 1985년)를 參考.
(3) 『한국의 민속음악』 경상남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연구실편, 1985년.

'나무꾼신세타령'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어사용에서는 曲의 곳곳에 '이후후후'라는 사설을 아주 짧게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나무꾼들이 산에서 나무를 할 때 범이 가끔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를 쫓기 위해서 범이 무서워한다고 전해지는 '이후후후'라는 동물이름을 曲의 중간중간에 넣어 부른다[4]고 하는 것을 보면 산의 노래라는 것은 확실하다 하겠다.

또한 어사용은 불리우는 地方에 따라서 '어산이' '어산용' '어사용' '어새이' '얼사용' 등 여러가지로 불리우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梵唄와 同一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魚山(어산)'을 村夫들의 입을 通해서 發音하게 되면 '어산이'로 되고 그것이 좀더 地方사투리에 섞여들게 되면 '어새이' '어산요' '어사용' 등으로 불리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같이 佛教儀式音樂으로서의 '어산'과 土俗民謠로써의 '어사용'은 발음상으로 무척이나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목에 있어서의 유사성이 音樂的으로는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는 뒷 항목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어사용'과 '어산'이라는 用語에 대해서 研究되어진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메나리' 또는 '어사용'에 대해서는 『閑居筆談』[5]에서 다음과 같이 '勉我利'로 소개하고 있다.

…農家 所謂 勉我利 山有花者 即 農人相勸之謳也 或云 勉我利 山有花之謠 出於扶余百濟古都者 非也 而即 農婦之互相和家勸 勉我利之謂也 所謂 山有花者 或云 松江鄭公 出伯關東東人賴抆 農業公作山有花曲 敎之以相和 勸農之意而 未知何說 孰是 俚語 所謂 雞卯有骨者 人之無福事多不成之謂也…

즉 메나리는 농군들이 부르는 것으로 혹자가 메나리는 부여, 백제에서 불리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농군이나 부녀자들이 서로 화목한 가정을 갖게 하는 것이 메나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李在郁[6]와 高晶玉[7]과 같은 國文學者들이 研究한 것에 의하면 樵夫牧竪間에 불리우는 '산유해'와 '얼사영'은 같은 것으로 哀調를 띈다고 쓰고 있다. 또한 李輔亨님은 '메나리' '山有花' '樵夫歌(어사용)' 3가지를 농업노동요로 보고 自由리듬과 약간의 非固定旋律을 지녔다는 점과 메나리調로 되어 있고, 같은 선율형이며 장식음 쓰는 법이 같다는 점을 들어 같은 유형의 민요로 규정하고 있다.[8]

다음으로 '魚山(어산)'에 대해 說明한 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음악은 일명 범패, 梵音, 인도(印度 또는 引導)소리, 또는 魚山이라고도 한다. 韓萬榮著, 『韓

(4) 1988.8.19日 경남 밀양군에 사는 신의근氏와 대담한 것에 의함.
(5) 『閑居筆談』, 醴泉公(諱鐸修), 崇禎紀元後五, 戊戌梧月望, 起淳.
(6) 李在郁: "所謂 山有花와 산유해 미나리의 交涉", 『新興』 6號, 1931年 12月, p.73.
(7) 高晶玉: 『朝鮮音樂研究』, 서울: 首善社, 1949年, pp.134-5.
(8) 李輔亨: "메나리調(山有花제)", 『韓國音樂研究』 제 2 집, 1973년, pp.111-131.

國佛敎音樂硏究(증보판)』, (서울大學校出版部 : 1984年), p. 1.

지금 우리 朝鮮에서 하는 梵音은 曹 子建이가 魚山에서 맨드러낸 것을 智異山雙溪寺眞鑑國師가 배워다가 傳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引導上番을 魚山이라 하고 引導소리 하느니를 魚山이라 하고 梵音가르치는이를 魚長이라 하고 梵音배우는데를 魚會라고 한다. 退耕 權相老, "佛敎決疑", 『佛敎』 80號(京城 : 佛敎社, 1931년), p. 48.

또는 魚山, 魏 曹植이 이곳에서 처음 梵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로 因하여 梵唄를 漁唄 또는 漁梵이라 함. 玄讚四에 「陳思王이 魚山에 올라가서 巖岫의 誦經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淸婉流亮하여 먼 골짜기에서 흐르는 소리같은지라 그 소리를 본따서 梵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俗중에서 梵唄를 漁唄라고 한다.」『韓國佛敎大辭典』 四集, 한국불교대사전편찬원회(서울 : 寶蓮閣, 1982년), p. 475, 漁山條.

卽漁山. 一名吾山. 在山東東阿縣西八理. 以陳思王曹植遊. 此戚梵唄而著名. 『佛敎大辭典』, 丁福保編纂(文物出版社, 1984년), p. 974, 魚山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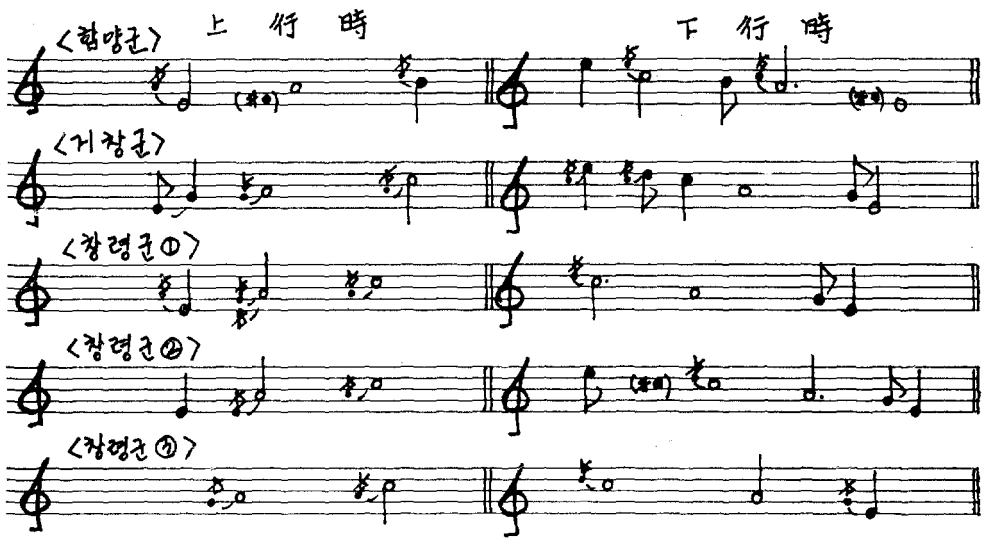
阿縣西八里に在る山の名. 又漁山, 或は 吾山に作る. 陳思王曹植, 嘗て此に遊び, 梵唄を感じたるを以こ其の名著はる. 望月信亨著, 『望月 佛敎大辭典』 1集, (世界聖典刊行協會 : 昭和 29—33年), p. 626, 魚山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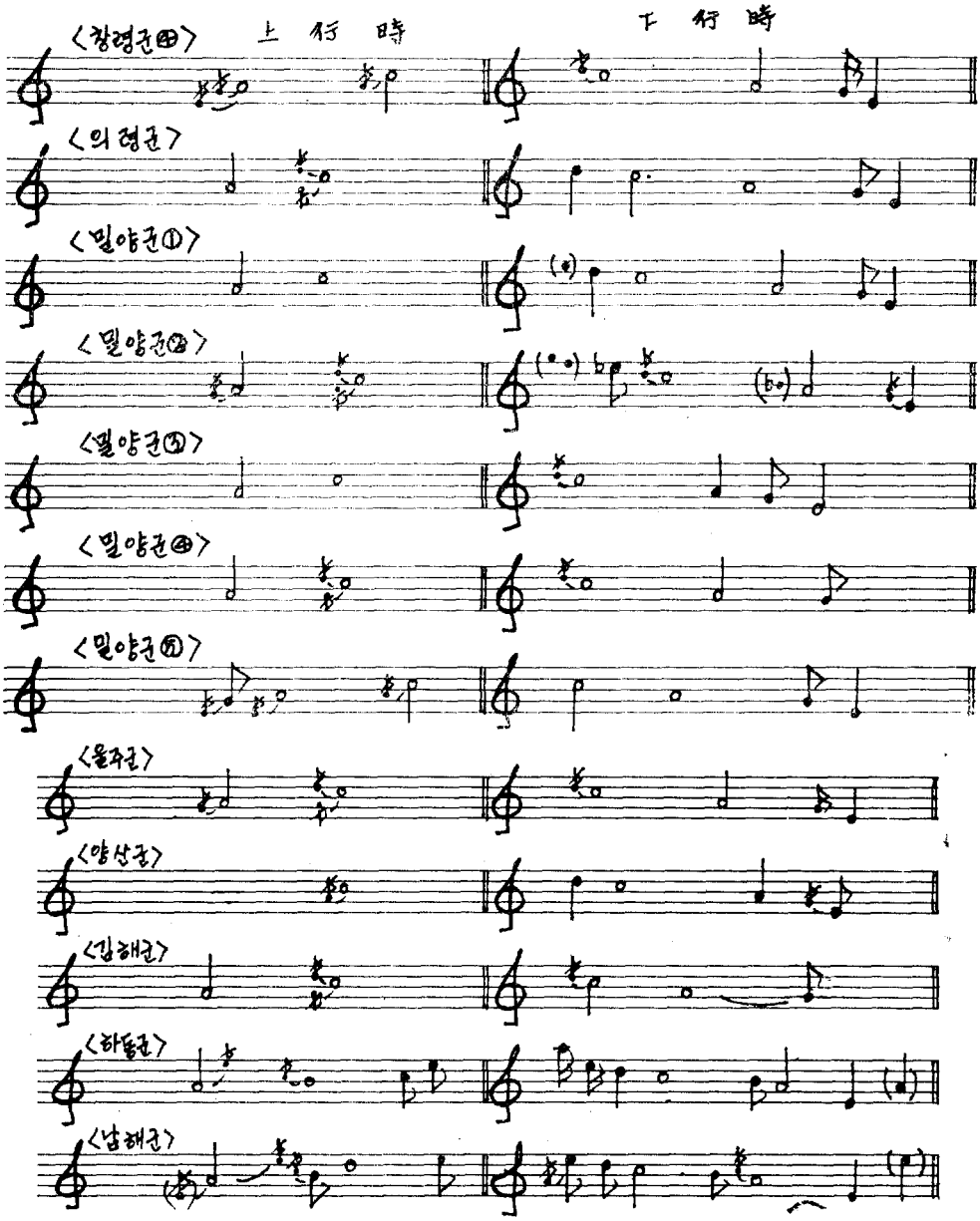
위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어산요'와 '魚山(어산)'은 土俗民謠와 佛敎儀式音樂이라는 전혀 다른 장르의 音樂으로 구분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장르의 음악이 얼마만큼 음악적으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어사용선율의 특징

本稿에서 다루고 있는 10개郡에서 採集한 16曲의 어사용으로부터 축출한 出現音들을 上行時와 下行時의 音進行으로 구분해보면 아래에 나타난 〈보례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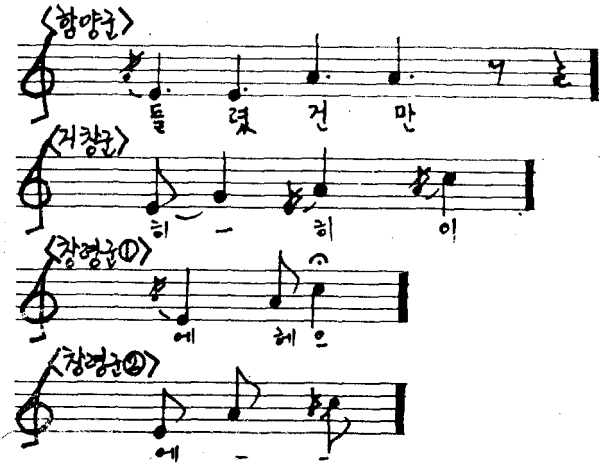
〈보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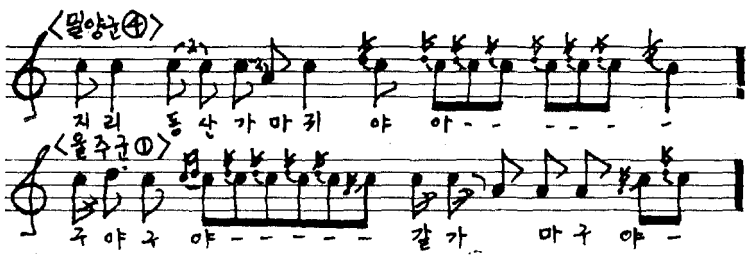
위의 〈보례 1〉에서 나타난 音進行들을 보면 旋律의 上行時에는 la와 do′를 骨格音으로 해서 la를 mi 혹은 sol이 아래에서 꾸며주고 있고, la 혹은 re′가 아래와 위에서 각각 do′를 꾸며주고 있다. 그러나 함양군, 거창군, 창령군①, 창령군②의 어사용에서는 아래의 〈보례 2〉에서와 같이 mi를 단순히 꾸밈음으로만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보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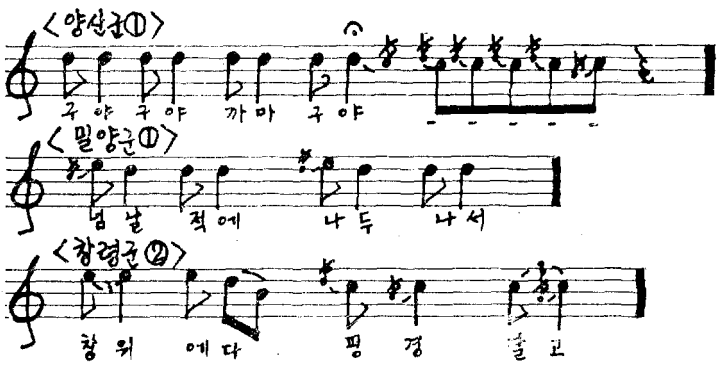


다음에는 旋律의 下行時에 나타난 音進行들을 보면 do′—la—mi를 骨格音으로 하며 〈보례 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re′는 do′를 짧은 싯가로 꾸며주며 또한 re′는 mi′와 함께 〈보례 4〉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사설을 촘촘히 엮어나는데에서 보인다.

〈보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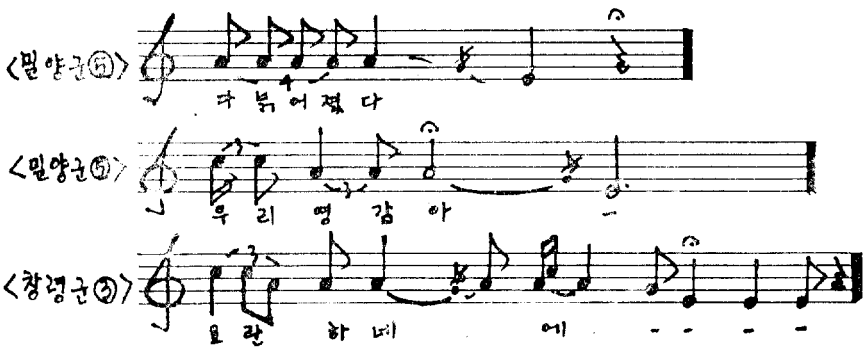


〈보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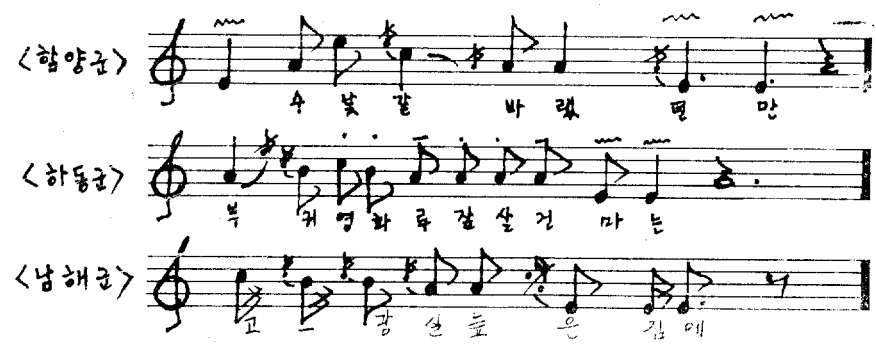
〈보례 4〉에서와 같이 mi′ 혹은 re′에서 do′로 下行한 音은 〈보례 5〉와 같이 la로 下行한 후 sol를 경과음으로 하여 mi로 下行하는데

〈보례 5〉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의 어사용에서는 〈보례 6〉과 같이 la에서 곧바로 mi로 下行한다.

〈보례 6〉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10개군 어사용 17曲들을 出現音과 音進行에 따라 分類해 보면 〈도표 1〉과 같이 나타난다.

〈도표 1〉

유 형	어 사 용 해 당 지 역
A	창령군①②③④, 울주군①①-1, 의령군, 밀양군①②, 양산군
A′	밀양군③, 거창군
A″	밀양군④, 김해군
A‴	밀양군⑤
B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도표 1〉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A形이 17曲 中에 함양군, 하동군, 김해군어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14曲의 旋律型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B形에 속하는 3曲의 어사용은 嶺南의 다른 어사용들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B形에 속하는 3曲을 자세히 살펴보면 함양군어사용은 전라도의 육자백이선율과 흡사하고, 하동군·남해군어사용은 전라도의 흥타령선율과 흡사하여 이것은 嶺南어사용의 가사에다 전라도의 대표적인 曲들이랄 수 있는 육자백이나 흥타령의 선율을 붙인 것이다.

이와같이 同一한 旋律에다 다른 장르에서 부르는 가사를 붙이는 경우는 土俗民謠에서 가끔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사설의 내용만으로 장르를 分類하는 國文學에서는 위의 3曲을 嶺南어사용으로 분류하겠지만 本稿에서는 嶺南어사용의 旋律的 특징을 살피고자 하므로 위의 3曲을 제외한 14曲만을 한정시켜서 살펴보고자 한다.

上行時의 音進行은 〈보례 1〉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la와 do′를 骨格音으로 해서 la를 mi 혹은 sol이 아래에서 꾸며주고 있고, la 혹은 re′가 아래와 위에서 각각 do′를 꾸며주고 있다.

下行時에는 do′—la—mi를 骨格音으로 하고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도표 1〉과 같이 유형을 分類할 수 있는데 그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形은 mi′와 re′가 do′의 꾸밈음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잠시동안 소리를 치켜부르면서 사설을 촘촘히 엮어나가지만 그러한 음들을 do′와 la에서 머무르다가 sol을 경과음으로 하여 mi에서 짧게 終止한다.

A′形은 A形과 흡사하지만 단지 mi가 A形에 비해 사설붙이는데에 자주 사용된다. A″形을 A形과 흡사하나 終止音이 mi가 아니라 sol이라는 점에서는 다르다. A‴形은 do′의 꾸밈음으로 mi′와 re′가 사용되지 않고 do′가 쓰이고 있고 다른 유형들에 비해 mi를 길게 지속시켜 준다.

다른 土俗民謠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어사용 또한 唱者, 장소, 시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旋律이 母旋律(Mutter melodic)[9]이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嶺南의 10개郡에서 불리우고 있는 14개의 어사용을 通해서 불완전하나마 오랜 옛날부터 나무를 하면서 불리우던 어사용이 지녀왔던 母旋律을 찾아내고자 한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위에서 살핀 것들을 宗合해서 어사용의 母旋律을 推定해 보겠다.

어사용旋律의 上行時에는 〈보례 7〉에서와 같이 la에서 do′로 진행하는데 mi 혹은 sol이 la의 꾸밈음으로 사용되고 re′ 혹은 ra가 do′의 꾸밈음으로 사용되는 旋律型이 14曲의 上行旋

(9) Hans Merismann, Grundlagen Einermusikalischen volksliedforschung.

律 中에 가장 많이 出現하므로 〈보례 7〉과 같은 旋律型은 嶺南어사용의 上行時 기본旋律型이 된다.

〈보례 7〉

어사용旋律의 下行時에는 〈보례 8〉에서와 같이 do′—la—mi로 進行될 때 mi′ 혹은 re′가 do′를 꾸며주고 la에서 mi로 下行할 때는 sol를 경과음으로 사용하는 旋律型이 14曲의 下行旋律에서 가장 많이 出現하므로 〈보례 8〉과 같은 旋律型은 〈보례 7〉에 나타난 上行旋律型과 마찬가지로 嶺南어사용의 下行時 기본旋律型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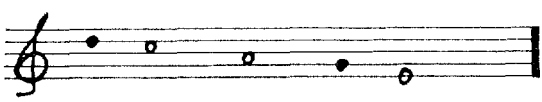
〈보례 8〉

앞의 〈보례 8〉과 같은 旋律進行형태는 韓萬榮님의 "태백산맥이동지방의 민요선법"[10]에서 밝힌 〈보례 9〉의 東部民謠旋法과 흡사하고,

〈보례 9〉

또한 李輔亨님이 "메나리조(山有花제)[11]"에서 밝힌 〈보례 10〉의 메나리조旋法과 흡사하다.

〈보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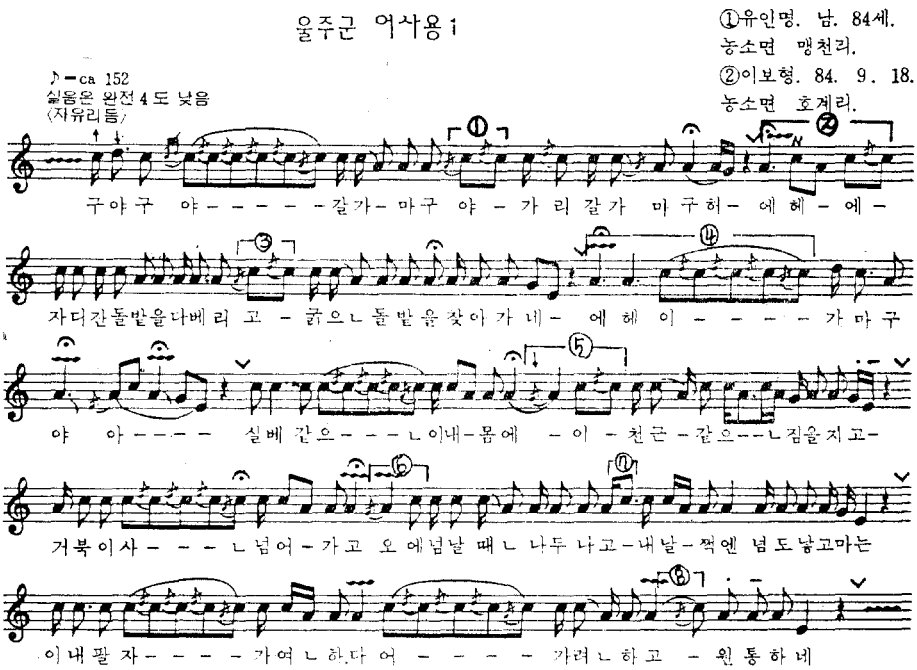
그러나 〈보례 9〉와 〈보례 10〉에서 보여준 旋法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上行·下行旋律型과

(10) 韓萬榮 : "태백산맥이동지방의 민요선법", 『예술논문집』 12集(서울 : 대한민국예술원, 1973년), pp. 121-147.

(11) 李輔亨 : "메나리調(山有花제)", 『韓國音樂硏究』 2集, 1973年, pp. 111-131.

비교해보면 上行보다는 下行旋律型에 더욱 가깝다. 즉 上行旋律이 出現하는 部分은 曲 全體를 通해서보면 극히 짧은 旋律로 구성되어 있지만 下行旋律과 下行旋律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上行旋律型은 下行旋律型과는 구분되어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點들을 실제 曲을 通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보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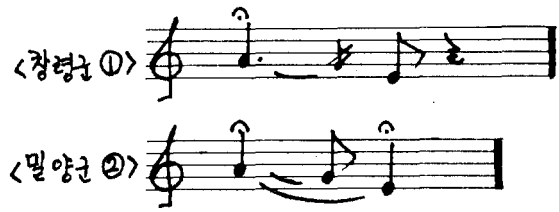
위에 예시된 〈보례 11〉를 通해서보면 ①부터 ⑧까지 표시해 놓은 旋律部分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下行旋律型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曲의 첫 부분 '구야구야 갈가마구야'를 보면 '구야구야'의 마지막 사설인 '야'에서 re'가 do'를 짧게 반복해서 꾸며주는 선율형태가 지속되다가 맨 마지막 do'는 단3도 아래音인 la를 꾸밈음으로 해서 '구야구야'의 사설을 마무리한다. 그 뒤의 사설인 '갈가마구야'에서는 do'에서 la로 下行하여 흐르다가 '야'는 la를 꾸밈음으로 하여 do'로 上行하였다가 곧바로 re'를 꾸밈음으로 하여 do'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la에서 do'로 上行하는 부분들이 樂譜內의 ①부터 ⑧까지 나타나는데 이것은 下行旋律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짧은 연결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嶺南에서 불리우는 어사용들은 主로 下行旋律로 구성되어 있고 下行旋律들의 사이사이에 上行旋律의 짧은 연결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형태는 〈보례 11〉에 나타난 울

주군 어사용에서 나타난 특수현상이 아니라 嶺南의 10개郡 14曲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형상이다. 이러한 선율형태를 보다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Melodic Contour를 찾아보면 ／＼와 같은 선율골격이 graph에 나타나며 또한 이러한 선율골격들이 여러개 모여져서 어사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Melodic Contour를 나타낸 graph는 이 글의 맨 뒷부분에 실었다.

14曲의 어사용에 나타난 終止型을 살펴보면 〈보례 1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la에서 mi로 下行하는데 대부분의 曲들이 la와 mi 사이에 sol을 사이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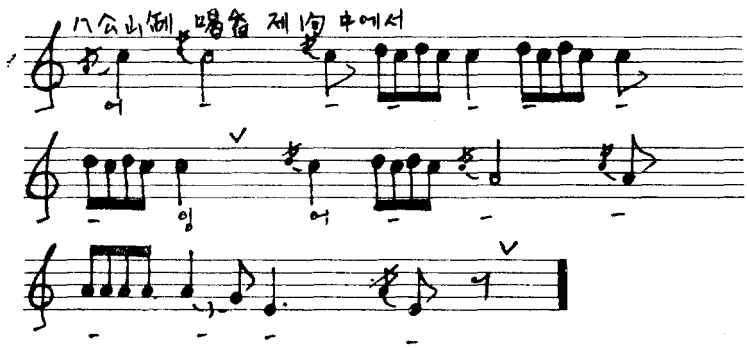
〈보례 12〉



3. 어사용과 梵唄旋律의 比較

앞에서 살펴본 어사용旋律의 특징 중에 re'가 do'를 짧게 반복하여 꾸며주는 선율형태는 八公山을 中心으로 해서 불리워지고 있는 八公山制 梵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선율형태로써 예를 들어보면 〈보례 13〉(12)과 같다.

〈보례 13〉



이와같이 속도가 ♩=50정도되는 아주 느린 梵唄의 선율형태와 ♪=170이상이나 되는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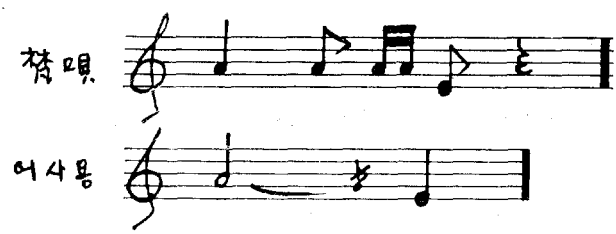
(12) 졸고, "梵唄 八公山制에 對한 硏究"(서울大 석사학위논문, 1985年), p. 42.

주 빠른 속도를 지닌 어산요의 특징적인 선율형태는 위에서와 같이 아주 흡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어사용과 梵唄에서 위의 re′가 do′를 짧게 반복하여 꾸며주는데는 각각 어떠한 기능적인 面들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어사용에서는 唱者가 신명이 난다든지, 曲을 길게 부르고자 할 때는 re′가 do′를 짧게 반복시켜 주는 선율을 길게 늘려서 부르고, 그렇지 않고 간단히 부르고자 할 때는 짧게 사설만을 촘촘히 엮어서 부른다. 또한 八公山制 梵唄에서도 佛教儀式의 進行속도에 따라서 曲의 길이를 늘이거나 줄이고자 할 때는 앞의 어사용에서와 마찬가지로 re′가 do′를 짧게 반복시켜 주는 선율을 얼마만큼 늘리느냐 아니면 사설을 촘촘하게 엮어 나가는 부분 즉 쓸어서 부르는 부분[13]을 얼마만큼 늘리느냐에 따라서 曲의 길이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때 어사용과 梵唄에서 re′가 do′를 짧게 반복하여 꾸며주는 선율형태는 演奏時間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밀접한 관련성을 지녔다.

梵唄에서는 정해진 사설이 있어 曲이 시작하고 끝마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終止形을 찾는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어사용과 같이 사설이 불규칙한 曲들에서 終止形을 찾아낸다는 점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14曲들 中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終止形을 찾아서 梵唄의 終止形과 비교해 보면 〈보례 14〉와 같다.

〈보례 14〉



위의 〈보례 14〉에서와 같이 어사용과 梵唄가 모두 la에서 mi로 下行하여 終止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梵唄에서는 la에서 곧바로 mi로 짧게 終止하는데에 비해 어사용의 대부분은 la에서 mi로 곧바로 下行하기보다는 sol과 같은 사이음을 거쳐 mi에 이르르며 mi를 梵唄에서 보다는 조금 길게 끌어준다.

re′가 do′를 짧게 반복하여 꾸며주는 선율형태는 八公山制 梵唄를 京山制 梵唄와 구분지어 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한가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율형태가 같은 嶺南地方의 어사

(13) 『梵唄와 作法』,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62호, 조사자 : 李惠求, 張師勛, 韓萬榮, 成慶麟, 서울 :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1969, p.24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사설을 촘촘하게 엮어 나가는 것을 '쓸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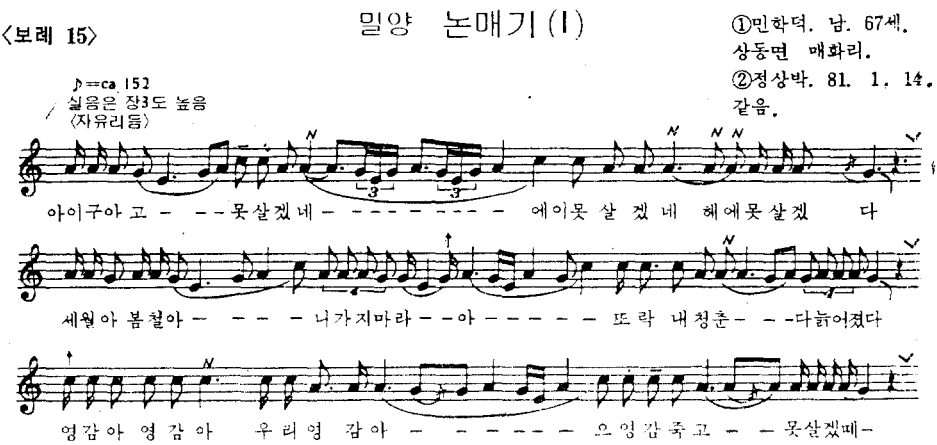
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별로 특이한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장중한 분위기 아래에서 行해지는 佛教儀式音樂인 梵唄와 山에서 村夫들이 나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와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크게 두가지 方向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梵唄로 부터 어사용이 영향을 받은 沈降文化[14] 형태로 볼 수 있고, 土俗民謠인 어사용으로 부터 梵唄가 영향을 받은 上昇文化[15]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가지 文化형태가 따로따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침강文化형태로 形成되어지기도 하고 혹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상승문화형태로 形成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梵唄와 어사용의 발생년대와 함께 母旋律이 밝혀지지 않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두가지로 나누어서 추측해 낼 수 있다. 즉 梵唄가 嶺南地方에 토착化되면서 民俗音樂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山에서 나무할 때 부르는 어사용의 旋律로 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京山制 梵唄와는 달랐던 八公山制 梵唄의 독특한 선율형태를 土俗民謠인 어사용(나무꾼신세타령)이 빌어다가 쓰게 되었는데 어산(魚山)이라는 曲명칭까지도 함께 빌어다가 쓰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같이 전혀 다른 장르사이에서 상호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한가지의 장르음악이 形成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장르음악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4. 어사용과 土俗民謠旋律의 比較

어사용의 旋律은 山에서 뿐만이 아니라 논에서 풀을 벨때 혹은 논을 맬때에 부르는 노래

〈보례 15〉



(14) Hans Naumann, Grundzuge deutchen Volkkunde (1922) p. 4.
沈降文化財(Abgesunkenes kulturg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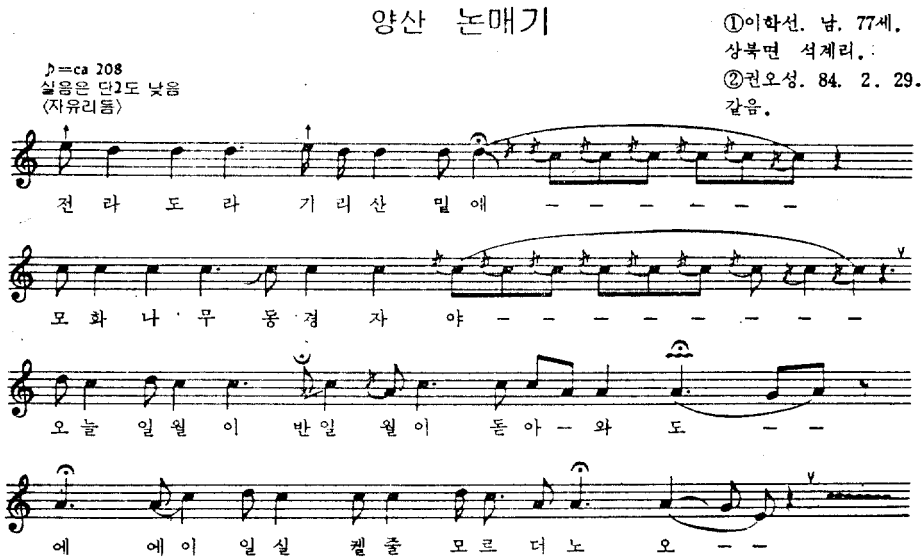
(15) Hans Moser, Musixlexikon (Hamburg, 1955).
上昇文化財(Aufsteigenes kulturgut)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嶺南地方의 '논매는 소리'를 通해서 어사용과 土俗民謠들 중에서 '논매기소리' 旋律과 比較해 보겠다.

먼저 밀양군에서 불리우는 여러 논매기소리들 中에서 〈보례 15〉와 같은 경우를 보면 사설이 다른 논매기소리들과는 달리 어사용과 흡사하고, 또한 旋律형태에서도 어사용 中에서 밀양군어사용③과 흡사하게 흐르고 있다.

그리고 양산군에서 불리우는 논매기소리 中에 한가지인 〈보례 16〉을 보면 비록 사설은 다르지만 旋律型을 보면 양산어사용의 旋律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사설만을 바꾸었을 뿐 어사용의 旋律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례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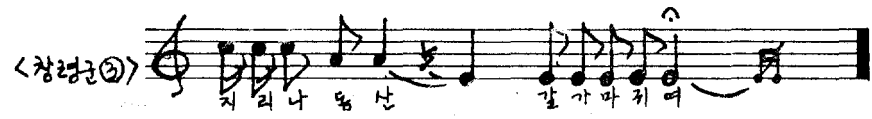
이와같이 山에서 부르는 어사용의 독특한 선율형태는 논에서 논매기를 할 때 부르는 소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설만 용도에 맞게 바꾸고 旋律은 다른 소리들에서 빌어다 쓰는 경우로써 土俗民謠에서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어사용의 독특한 선율형태는 八公山制梵唄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土俗民謠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다.

5. 어사용의 사설붙임법

어사용의 사설내용을 보면 다른 土俗民謠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해학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설들을 旋律위에 붙여서 부르는 方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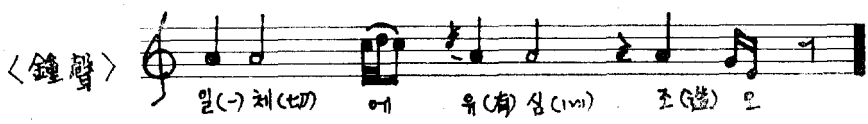
첫째, 〈보례 17〉에서와 같이 사설을 짧은 싯가로 촘촘하게 엮어서 부르는 方法이 있으며

〈보례 17〉



위와 같은 사설붙이는 方法은 八公山制梵唄의 선율중에서 사설을 촘촘하게 쓸어서 부르는 〈보례 18〉과 같은 부분과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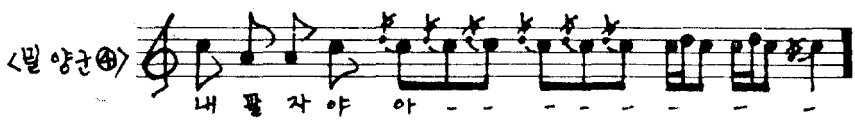
〈보례 18〉



그러나 어사용은 속도가 빠른 曲이고 梵唄는 속도가 아주 느린 曲이기 때문에 사설을 촘촘하게 엮어 부르는 形式은 같지만 사설의 1字 1字에 梵唄에서는 대부분 위와 아래에 꾸밈음을 사용하고 있는데에 비해 어사용에서는 거의 꾸밈음없이 엮어 나가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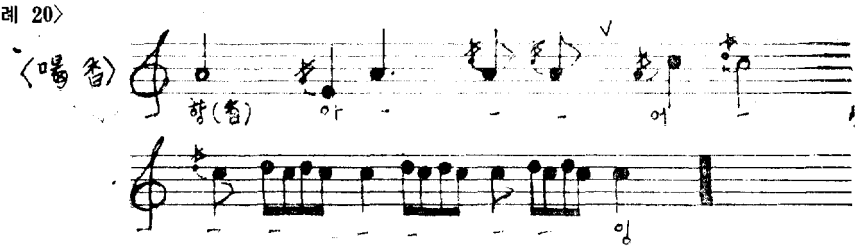
둘째, 〈보례 19〉에서 보여주듯이 사설 中間에 인접音인 re'가 위에서 do'를 짧게 꾸며주

〈보례 19〉



는 것을 반복하는 方法으로 '으' '이' '에' 등과 같은 의미없는 사설이 붙는데 이것은 〈보례 20〉에 나타난 것과 같이 八公山制梵唄에서 사설 1字를 부르고 그 뒷부분을 입타령으로 연결시켜 선율을 길게 엮어 나가는 부분과 비교될 수 있다.

〈보례 20〉



國文學者들은 어사용을 사설 中心으로 分類·연구하여 '樵夫歌' '나무하는 노래' '갈가마구노래' '어사용이' '어시에' '어새이' 등으로 어사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中에 몇가지 사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초부요 1

어듸후후야 심산유곡 / 동모네야 벗님네야
가리갈가마구야 / 어서가자 바삐가자
잔솔밭을 넘어 / 점심도늦어가고
굵은솔밭으로 / 술도늦어간다
넘어가는구나 허허후후 / 허허후후야
가리갈마구야 이후후 / 가리갈가마구야 이후후

—선산지방(한국민요집 I [16]에서)

초부요 2

귀야귀야 갈가마귀야 / 동지섣달 바람에
신국산 넘어가는 / 부채든 우리영감아 우리영감아
아리알 갈가마귀야 / 솔방울에 맞아죽을 우리영감아
이리후후야 에이 / 이리 후후야 에이
영감아영감아 우리영감아

—울진지방(한국민요집 II [16]에서)

초부가

후후야 가리갈가마구야 / 내마암에 수심은
시리신국산 갈가마구야 / 누가 풀어낼꼬
가마구야 껌다고한탄마라 / 이팔청춘 소년들아
너가껌다고 한탄마라 / 백발보고 웃지마라
껌우면 속조처랑 다껌우까 / 어제청춘이것마는
백로야 히다고 / 오날날 백발이네
자랑마라 / 달아달아 우지마라
너가암만 히드래도 / 네가울면 날이새고
겉이히지 속조차 힐까부야 / 날이새면 해가돋고
만첩산중 고드럼은 / 해가돋으면 내가늙네
봄바람이 풀어내근마는 / 후후야 가리갈가마구야

—영천지방(조선민요집성 [17]에서)

어사용

구야구야 / 검다고 한탄마라
가리갈가마구야 / 속조차 검을소냐
신에신곡산 / 백로야 백로야
가리갈가마구야 / 희다고 자랑마라

(16) 임동권편, 『한국민요집』 I, II (집문당, 1974).
(17) 김사엽, 최상수, 방종현편, 『조선민요집성』(정음사, 1948).

같이야 희다만은
속조차 희다말자
그쭉소리 그만두고
이내소리 들어바라
후후야
가리갈가마구야
만첩청산 흑사리남근
모진광풍 못이겨서
가지가지 희롱한다
영감아 영감아
우리 영감아
개모년 흉년에
당가루핥아먹다가
몽당비자루 맞아죽은
우리영감아
밋디기뒷발에 치여죽은
우리영감아
수지비 아흔아홉그릇
먹다가 배터져죽은
우리 영감아
구야구야 신에신곡
가리갈가마구야
니어데가 자고왔노
신곡산에 잠이들어
동곡산에 자고왔네
헤헤헤 헤헤헤
임아임아 우리임아
나를두고 어딜가노
헤헤헤 헤헤헤
바람불고 비올줄알면
어느잡년이
빨래하러가나.

—경산지방(朝鮮民謠集成(17)에서)

※ 이 노래는 男謠로 青·壯·老年이 부르며 주로 나무할 적에나 논매기할적에 노래함.
韓國民謠集 I 에서는 동일한 가사로 樵夫謠 4로 채록.

樵夫謠 5

후후야 같이갈가마구야
시린신국산 같이갈가마구야
갈가마구야 껌다고자랑마라
속조치랑 다껌우까
백로야 희다고 자랑마라
니가 암만 희더라도
같이희지 속조치랑희까
만첩산중 고드름은
봄바람이 풀어내건마는
내마음의수심은 누가풀어내꼬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제 청춘이건마는
오늘날 백발이네
닭아닭아 우지마라
니가울면 날이새고
해가돋으면 내가늙네
후후야 같이갈가마구야

—선산지방(조선민요집성(17)에서)

나무하는 노래

까마구야 까마구야 까마구야 신에신곡산 가리갈가마구야~
감오년 숭년에 등거죽 열아홉버지기 묵고
오나락 밭에 새후치러 가가주고
매때기 딧다리에 체죽은 우루 영감아~
불쌍하다 원통하다 우루영감 불쌍하다~

(구비문학대계(18)(경북편) 7—1에서)

어시애

구야구야 가리갈가마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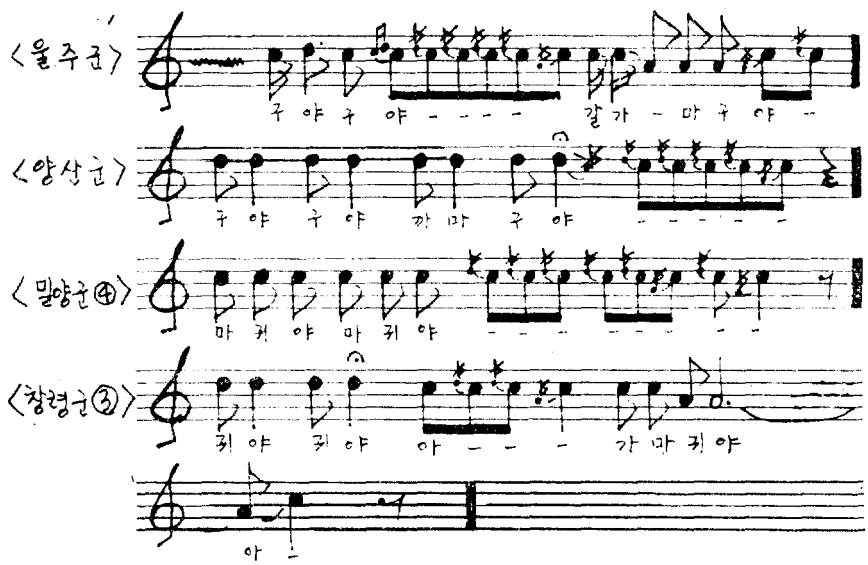
(18) 『한국구비문학대계』 경상북도 7(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시리실시신곡산천에 가리갈가마구야
구야구야 가마구야
큰산가마구 갈가마구
야산가마구 갈가마구
까옥까옥 짓지마라
정든님 병환이
저병이 더쳐온다
⋮
中 略 (구비문학대계[18](경북편) 7—6에서)

위에서 소개한 사설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本稿에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겠다.

위의 사설들 中 曲의 첫부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설은 '구야구야 가마구야~'인데 이것을 各地方에서는 어떻게 부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악보로 나타내보면 〈보례 21〉과 같다.

〈보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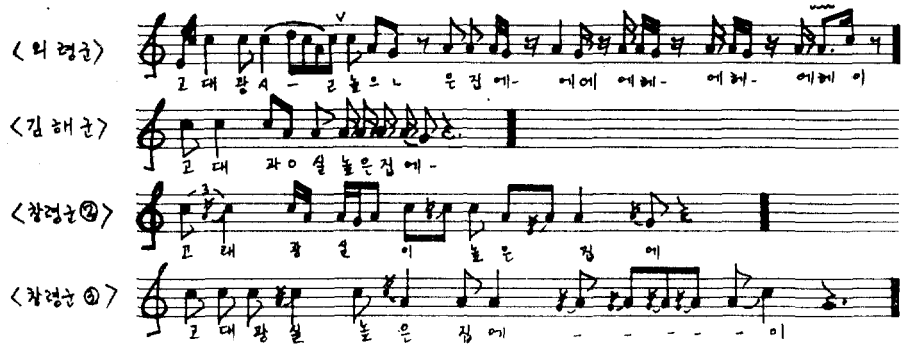


사설앞부분 '구야구야(마귀야마귀야)'를 보면 울주군, 밀양군④, 창령군③에서 모두 '구야구야'를 촘촘하게 엮어서 부르고 마지막 '야'는 re′가 do를 짧게 반복시켜 주고 있다.

'구야구야 가마구야~' 외에 많이 나오는 사설로는 '고대광실 높은집에'을 들 수 있는데 그러한 사설이 들어가 있는 선율들을 모아보면 〈보례 22〉와 같다.

의령군, 김해군, 창령군②③ 모두 do′—la—(sol)의 進行을 보여주며 의령군과 창령군③

〈보례 22〉



에서는 마지막 사설 '에'에서 sol과 la록 짧게 반복시키고 있으나 김해군, 창령군②에서는 사설을 촘촘하게 엮어 부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같은 사설로 부르더라도 唱者에 따라, 장소,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旋律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이렇게 同一한 사설에다 그에 따른 旋律들을 나열하여 그것들에서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方法을 통해서 여러 지방에 파편조각처럼 남아있는 어사용들에서 母旋律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Ⅲ. 結

本稿에서는 嶺南地方의 山에서 불리우는 어사용과 八公山制 梵唄(魚山)의 상호연관성을 旋律的인 面을 中心으로 해서 사설붙이는 方法 및 다른 土俗民謠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것들은 아래의 몇가지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① 魚山(梵唄)과 '어사용'은 발음상 아주 흡사하지만 사회적 기능을 보면 佛教儀式音樂과 山에서 나무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點에서는 차이가 난다.

② 어사용의 선율을 보면 上行時에는 la—do′를, 下行時에는 do′—la—mi를 骨格音으로하여 흐르고 曲全體를 通해서 보면 下行旋律이 大部分이고 上行旋律은 下行旋律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연결구역할을 한다.

③ 어사용과 八公山制 梵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re′가 do′를 짧게 반복하여 꾸며주는 선율형태는 둘다 演奏時間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④ 어사용의 독특한 선율형태는 八公山制梵唄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土俗民謠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本稿에서는 '논매기소리'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⑤ 어사용에서의 사설붙임법은 사설을 촘촘이 엮어 부르는 방법과 사설 중간에 '으' '이' '에' 등과 같은 의미없는 사설들을 붙여 曲을 길게 늘려 부르는 방법으로 나뉘는데 이점은 八公山制 梵唄와 흡사하다.

本稿는 어떠한 장르의 음악이든지간에 다른 장르들과 상호연관성을 맺으면서 形成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一例에 불과하다고 본다. 앞으로 장르간의 상호硏究들이 더욱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本稿를 作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權五聖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高晶玉, 『朝鮮音樂硏究』, 서울 : 首善社, 1949年.

退耕 權相老, "佛敎決疑", 『佛敎』 80號(京城 : 佛敎社, 1931年).

김사엽, 최상수, 방종현 편, 『조선민요집성』(정음사, 1948年).

졸고, "梵唄八公山制에 對한 硏究"(서울大석사학위논문, 1985年).

李輔亨, "메나리調(山有花제)", 『韓國音樂硏究』 제 2 집, (한국국악학회, 1973年).

李在郁, "所謂 山有花와 산유해 미나리의 交涉", 『新興』 6號, 1931年.

임동권 편, 『韓國民謠集』 Ⅰ, Ⅱ (집문당, 1974年).

韓萬榮, "태백산맥이동지방의 민요선법", 『예술논문집』12집, (서울 : 대한민국예술원, 1973年).

韓萬榮著, 『韓國佛敎音樂硏究』(증보판), (서울대출판부, 1984年).

『梵唄와 作法』,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62호(서울 : 문공부문화재관리국, 1969년).

『한국구비문학대계』 경상북도, 경상남도편.

『韓國의 民俗音樂』 경상남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연구실편, 1985年.

望月信亨著, 『望月 佛敎大辭典』 1집, (世界聖典刊行協會 : 昭和 29~33年).

『佛敎大辭典』, 丁福保編纂(文物出版社, 1984年).

『韓國佛敎大辭典』 4집,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서울 : 寶蓮閣, 1982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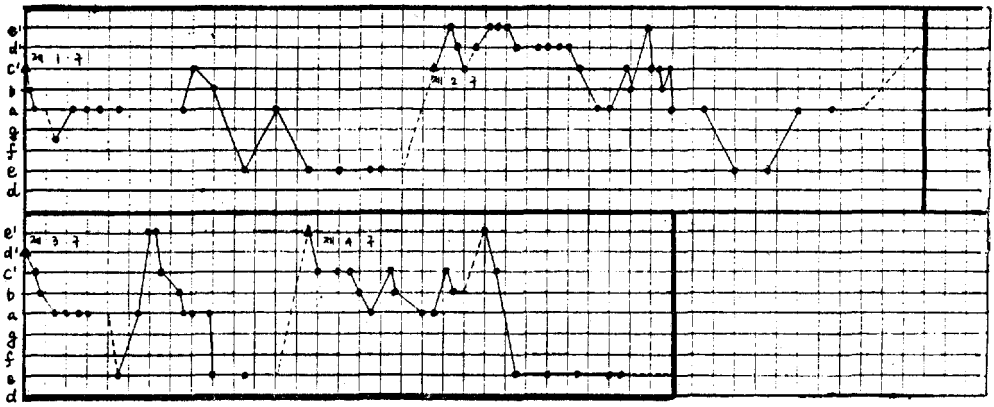
『閑居筆談』, 醴泉公(諱鐸修), 崇禎記元後五 戊戌.

Hans Moser, Musiklexikon (Hamburg, 1955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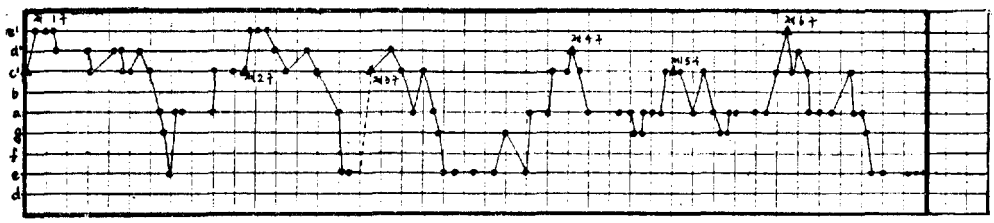
Hans Naumann, Grundzuge deutchen Volkkunde (1922).

Hans Merismann, Grundlagen Einer musikalischen Volksliedforsc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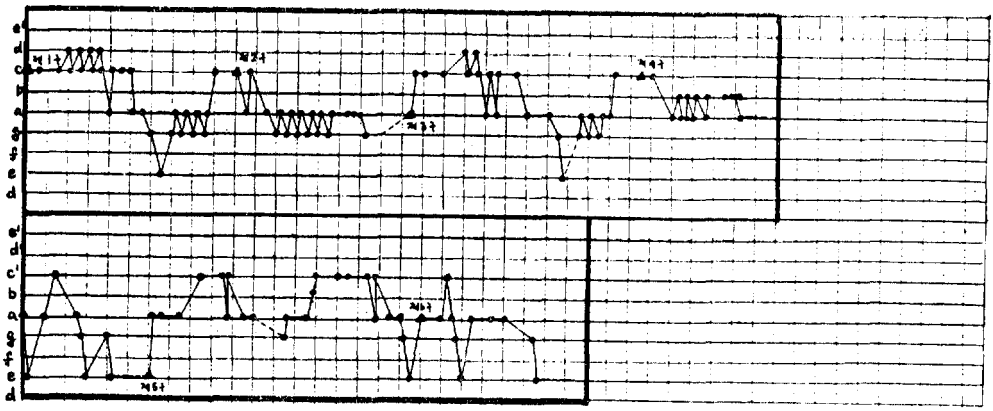
함양군 어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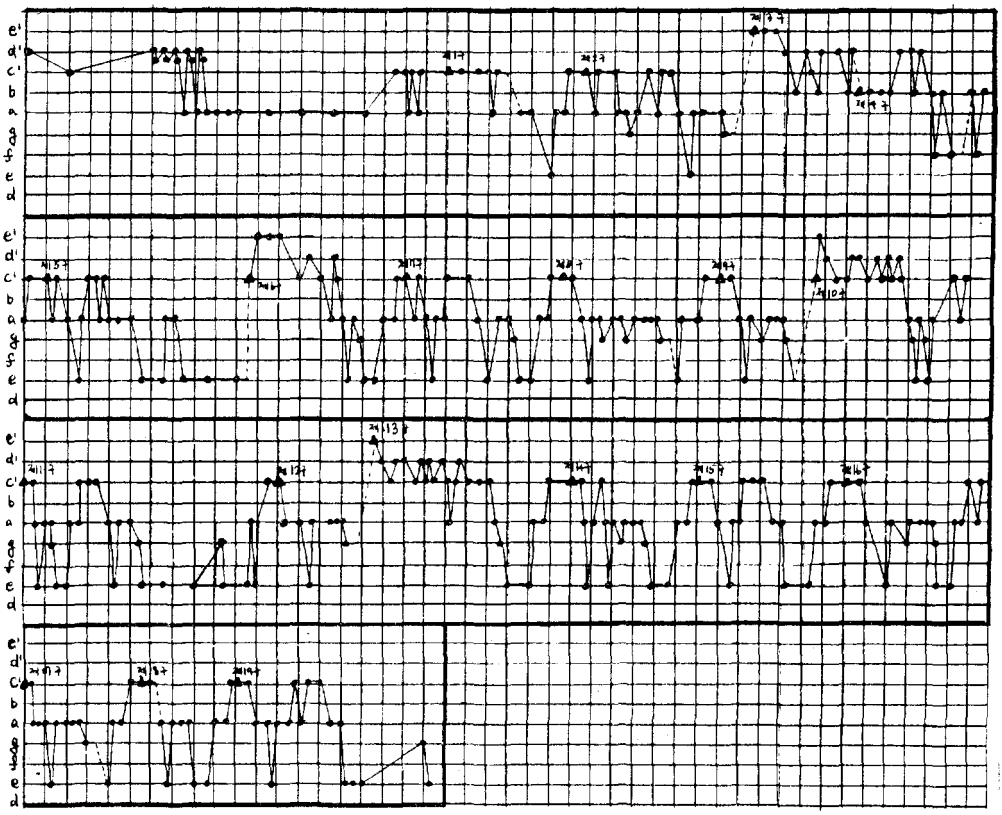
거창군 어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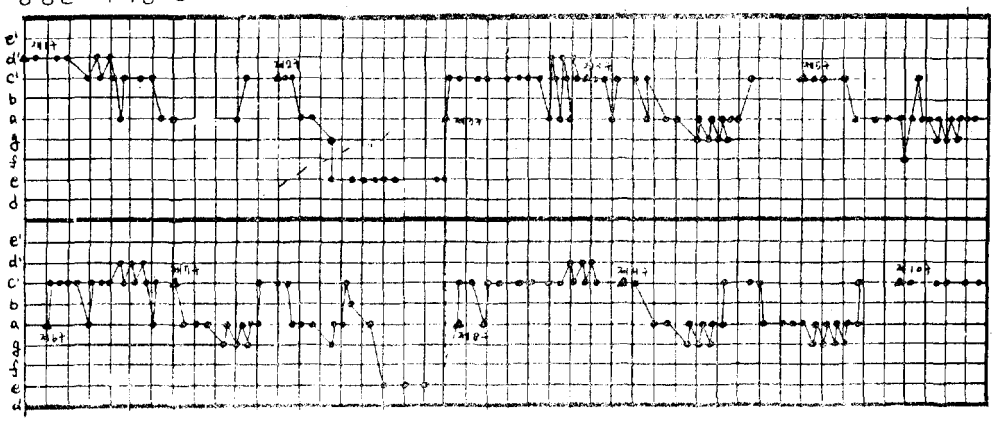
창령군 어사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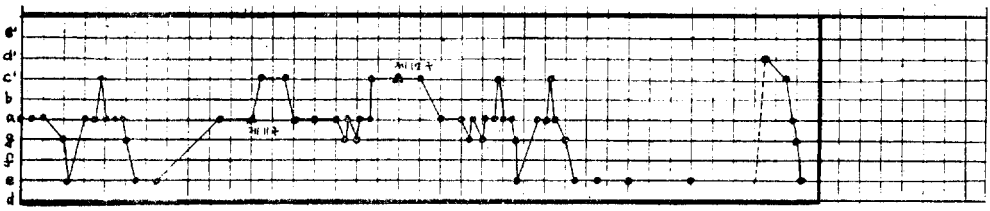


창령군 어사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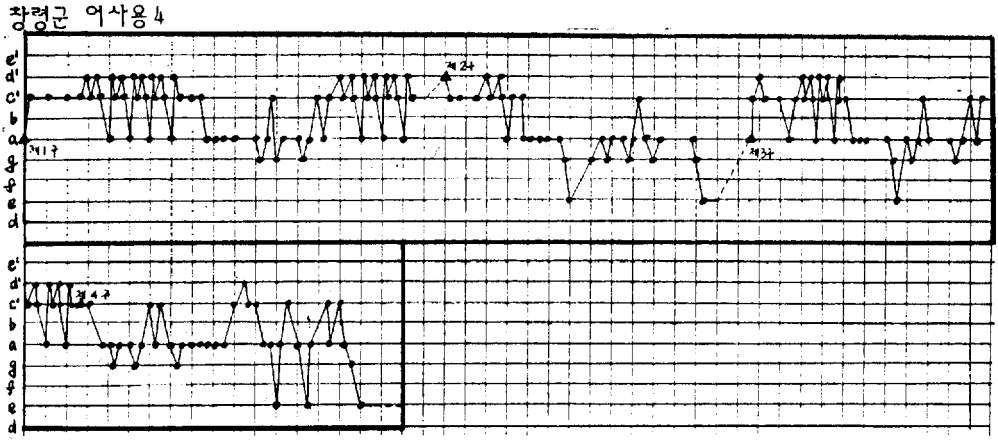


창령군 어사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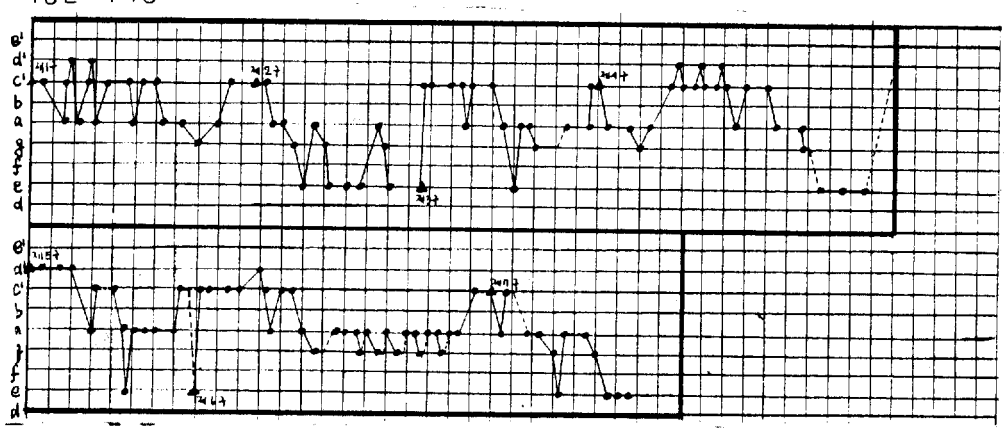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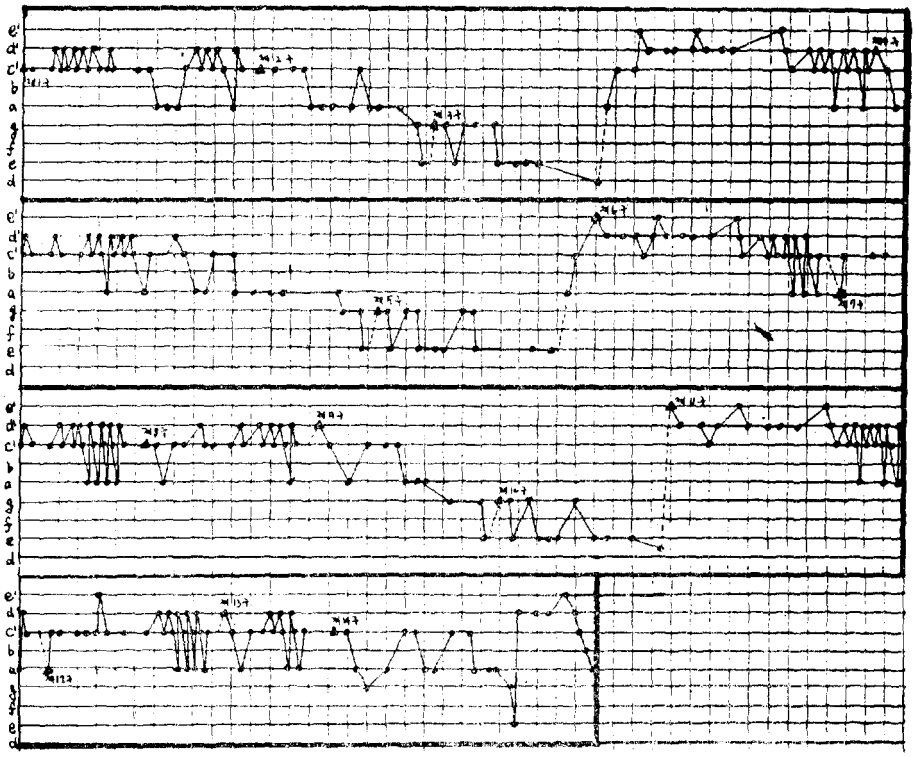
창령군 어사용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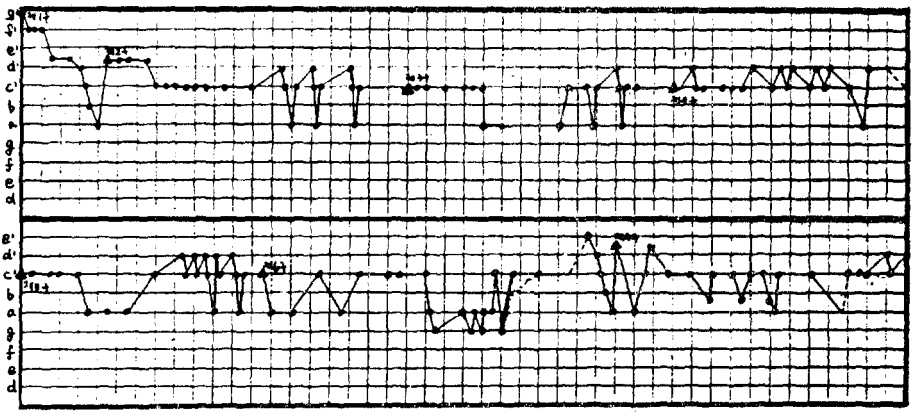
의령군 어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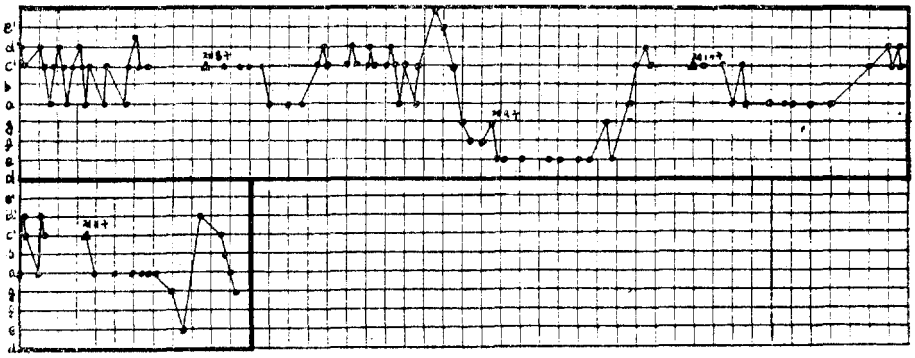


밀양군 어사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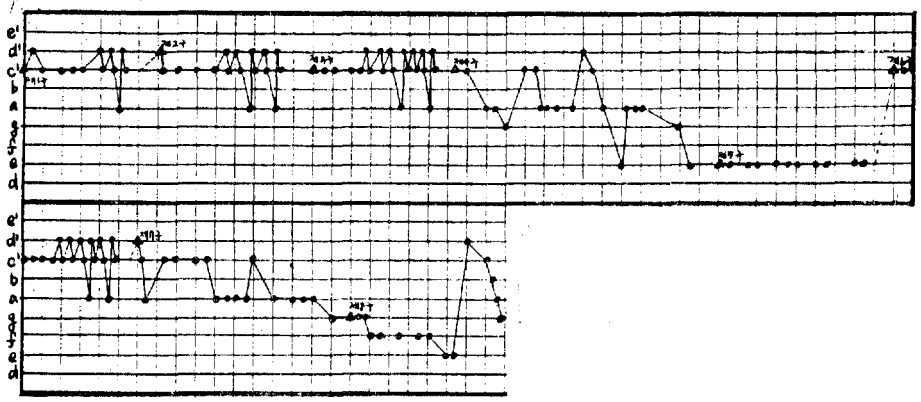


밀양군 어사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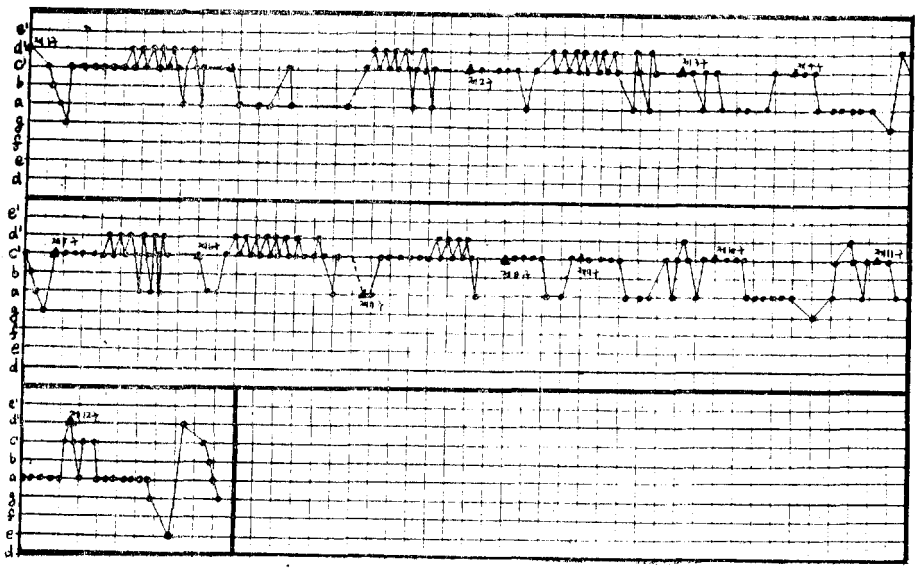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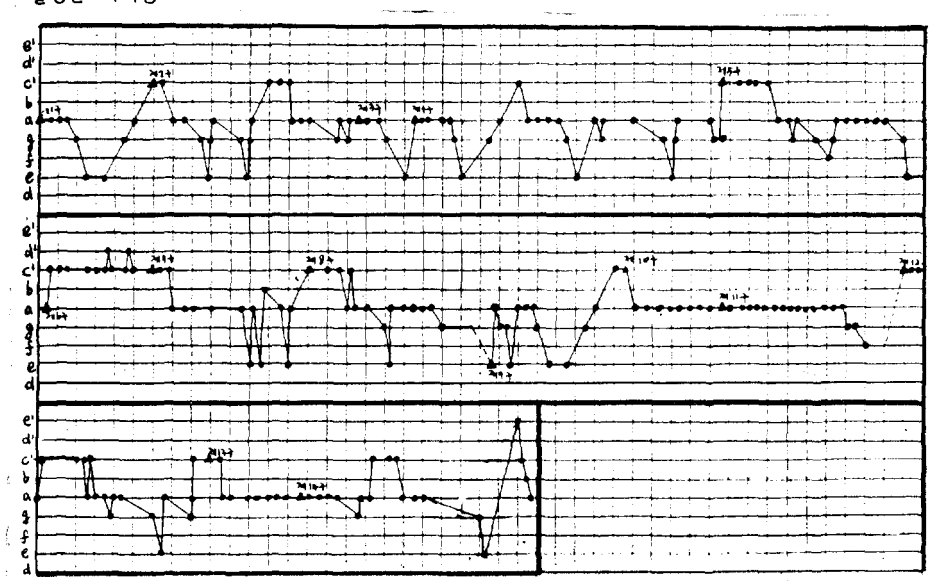
밀양군 여사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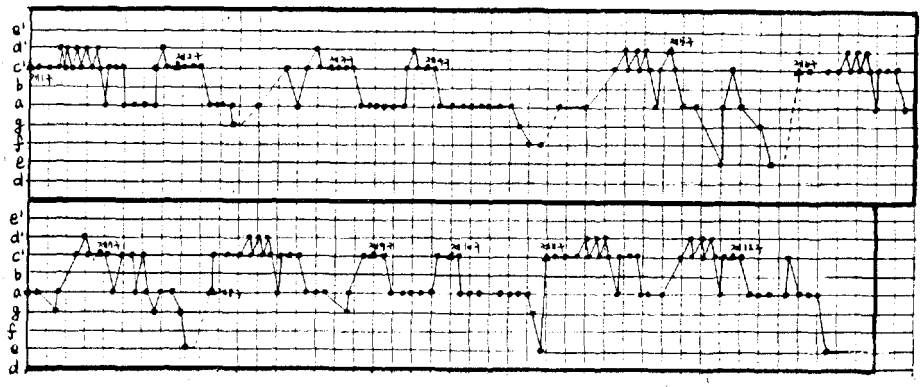
밀양군 여사용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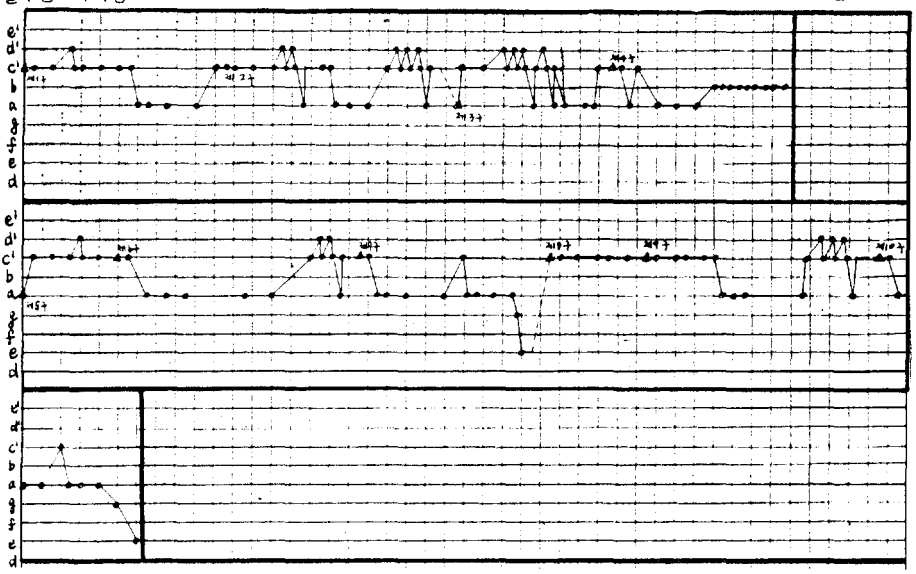
밀양군 여사용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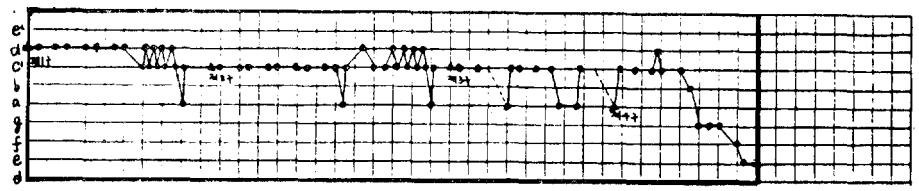
울주군 여사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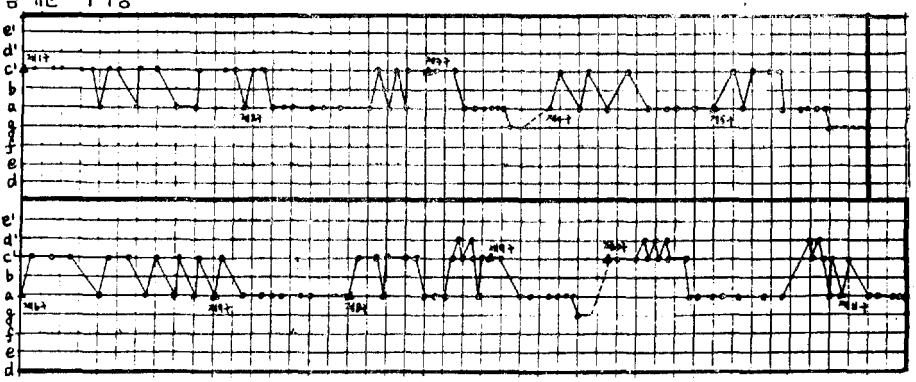
울주군 어사용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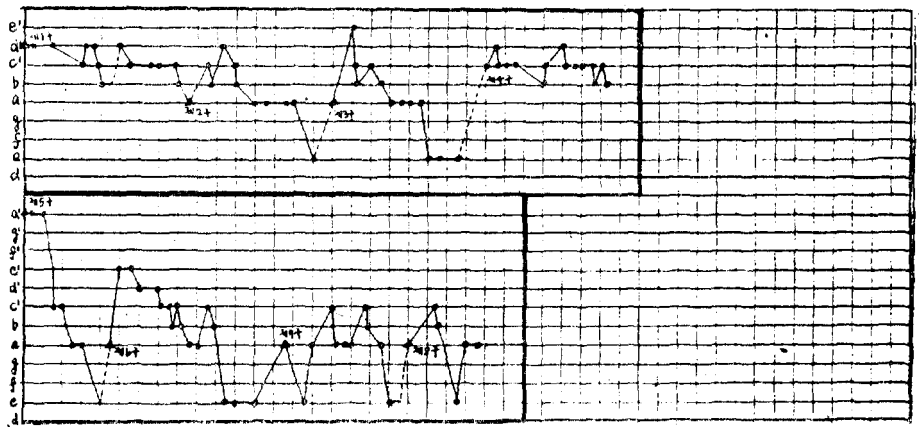
양산군 어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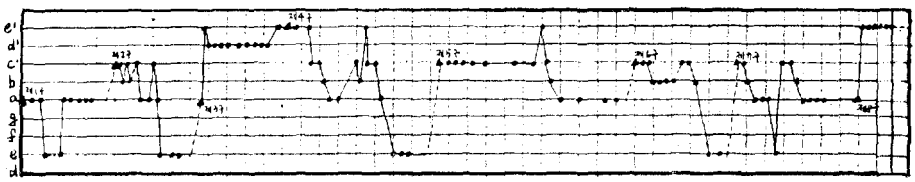
김해군 어사용



아동군 어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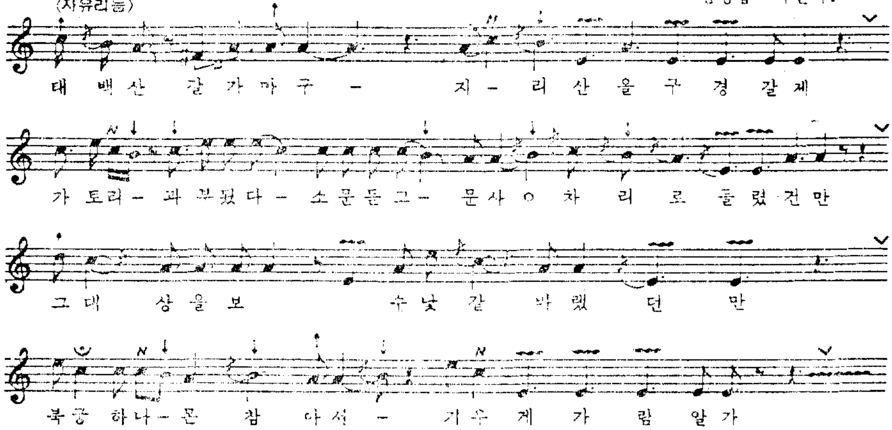
남해군 어사용



함양군 어사용

①
②권오성. 82. 8. 27.
함양읍 백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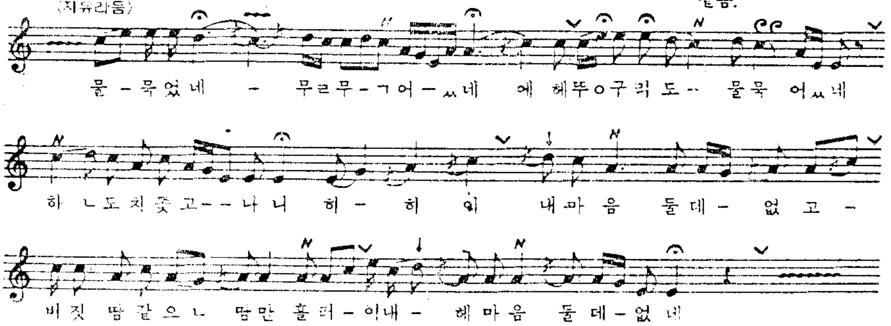
♪=200
실음표기
〈자유리듬〉



기장군 어사용

①이채화. 남. 55세.
웅양면 동호리.
②최정여. 80. 5. 28.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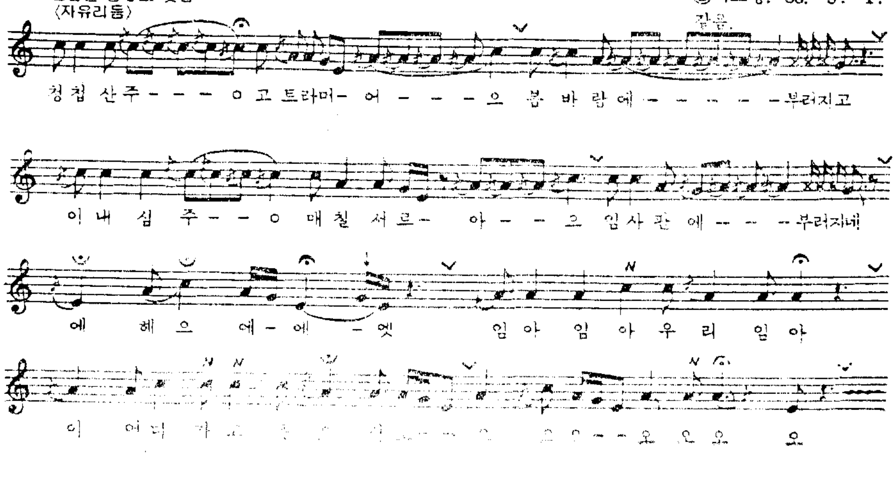
♪=ca 200
실음은 완전 5도 높음
〈자유리듬〉



창령군 어사용 1

①차이돌. 남. 67세.
영산면 구계리.
②이보형. 83. 3. 1.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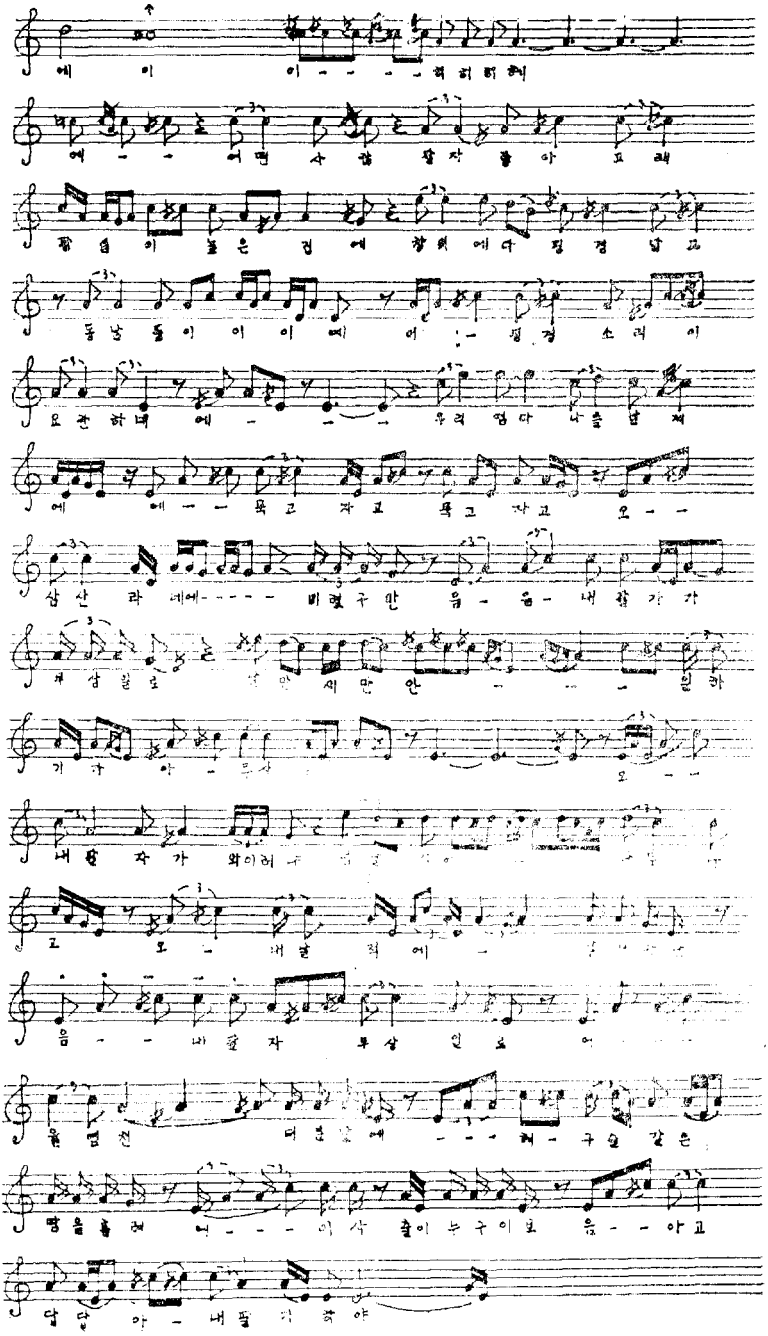
♪=ca 208
실음은 장 2도 낮음
〈자유리듬〉



강령군 어사용 2

김 만적 맬
백 일 형 採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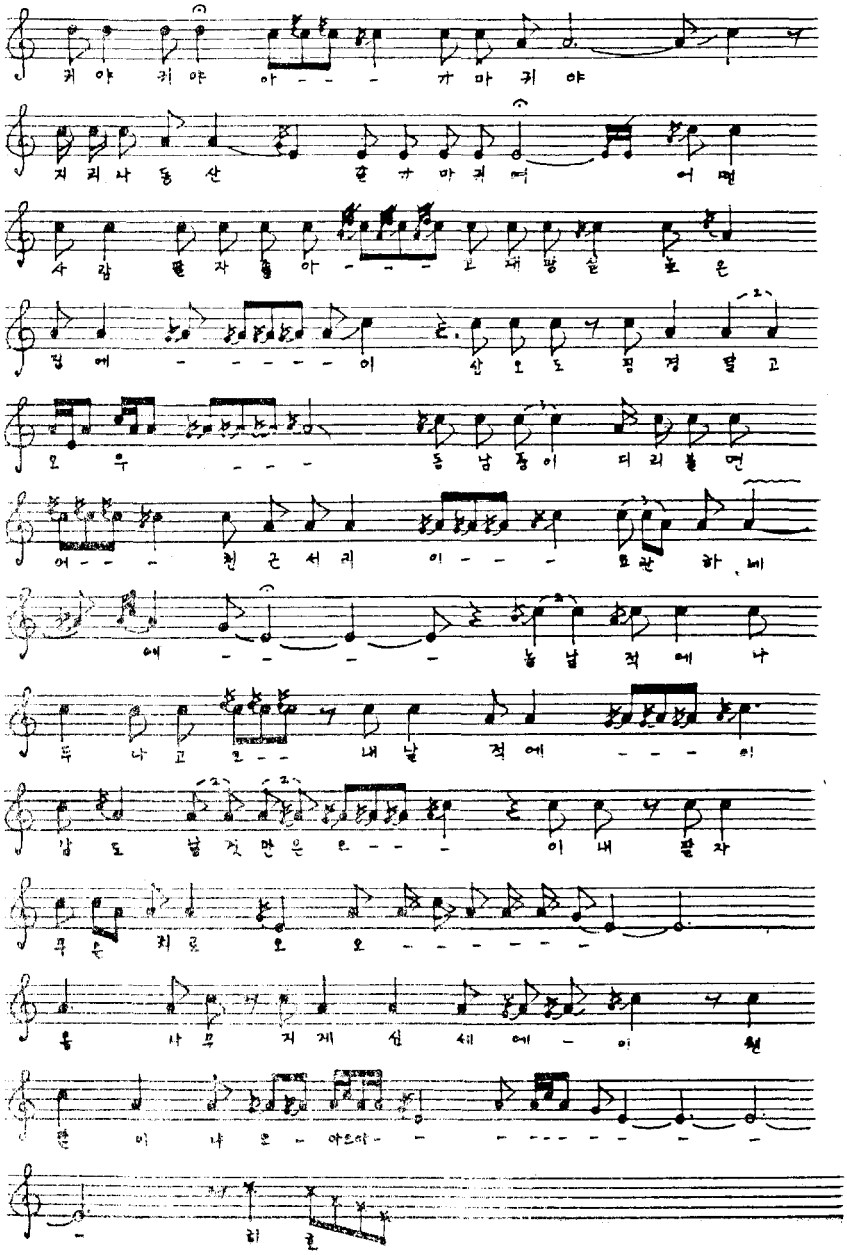
실음은 완전8°아래



창령군 어사용 3

김 이 문 맵
백 일 형 [illegible]

실음은 완전 8° 아래



길령군 어사용4

설영무 唱
백일청 採譜

실음은 장7°아래

이 팔 청 춘 우 - - - - - - - - - 소 년 들 아 어

- - - - 으 - - - - - - - - 백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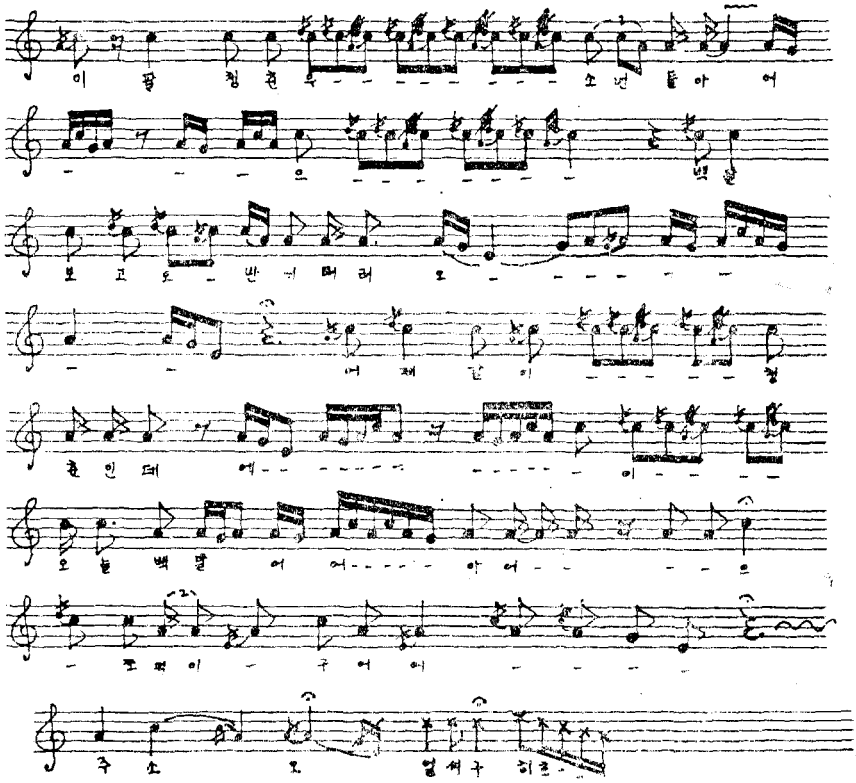
보 고 오 - 반 기 뛰 러 오 - - - - - - -

- - 어 제 같 이 - - - - - - 청

춘 인 데 에 - - - - - - - - - - - 이 - - - -

오 늘 백 달 어 어 - - - - - 아 어 - - - - - 으

- 조 퍼 이 - 구 어 어 - - - - -



주 소 오 엄 셔 구 히 즈 -

의령군 어사용

①이만출. 남.
부림면 신반리.
②정상박. 82. 1. 18.
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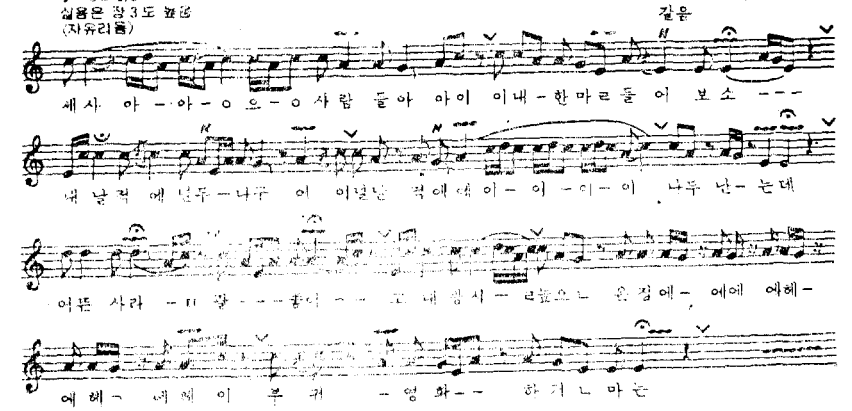
♪=ca 176
실음은 장3도 높음
(자유리듬)

세 사 아 - 아 - ㅇ 오 - ㅇ 사 람 들 아 아 이 이 내 - 한 마 르 들 어 보 소 - - -

내 날 적 에 날 두 - 나 구 이 이 날 날 적 에 에 이 - 이 - 이 - 이 나 두 난 - 는 데

어 뜬 사 라 - ㅁ 팔 - - - 좋 이 - - 고 내 생 시 - 르 높 으 느 은 정 에 - 에 에 에 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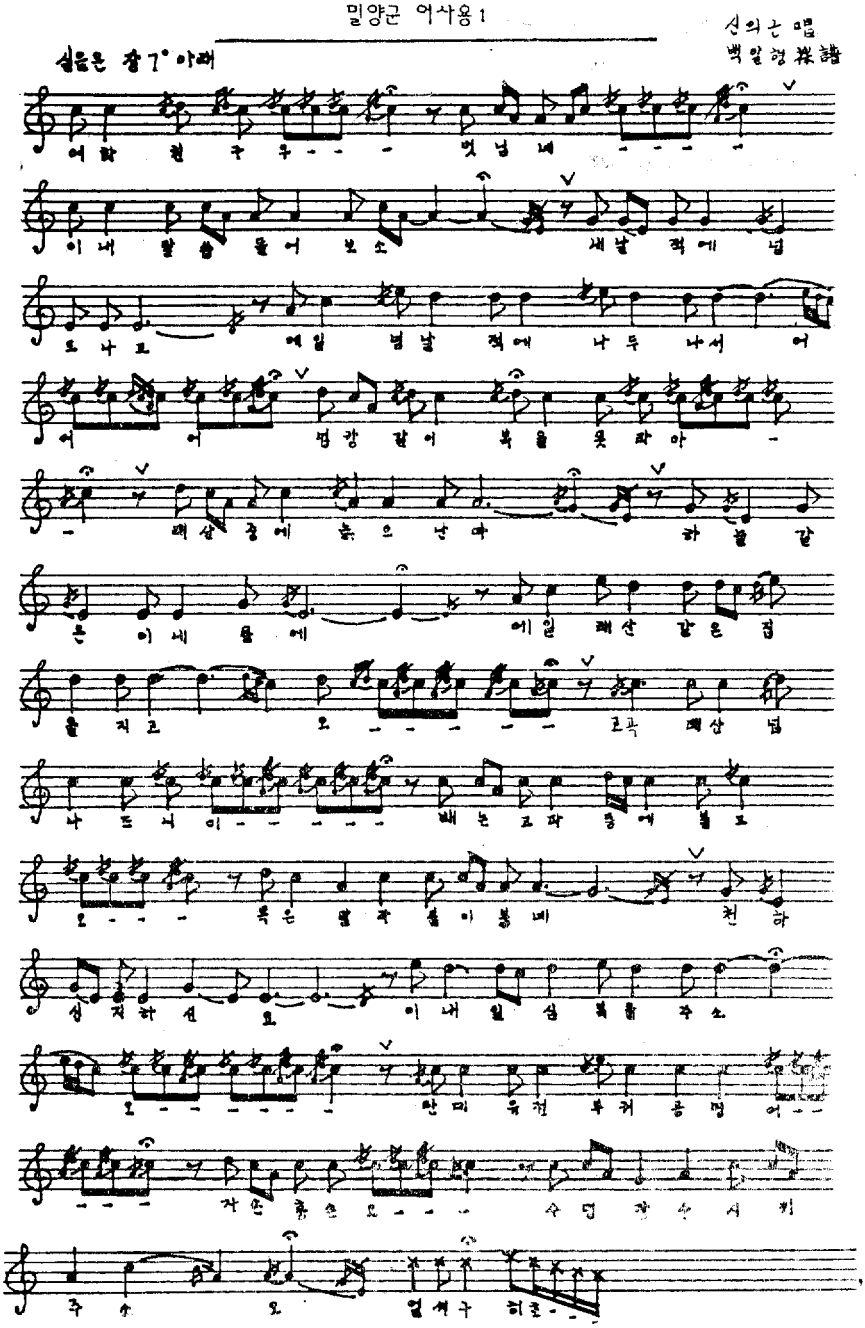
에 헤 - 에 헤 이 부 귀 - 영 화 - - 하 지 느 마 는



밀양군 어사용 1

신의근 맵
백일형 採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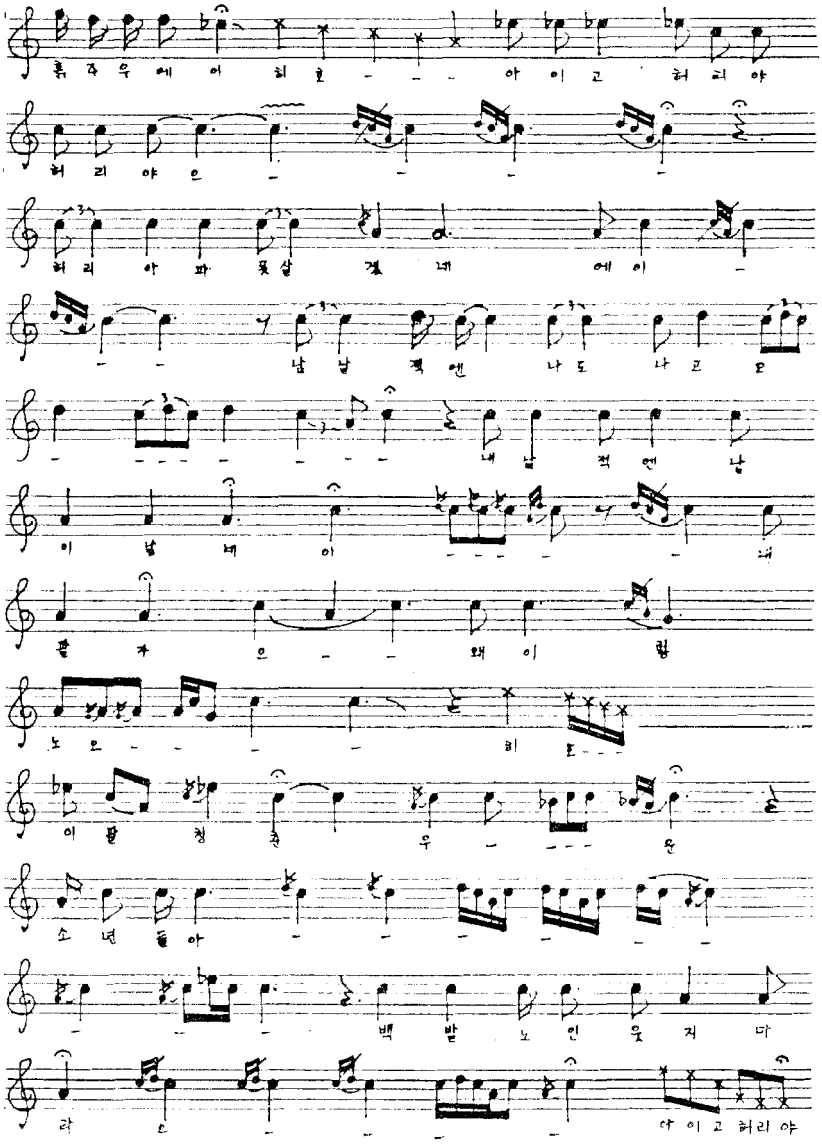
실음은 장 7°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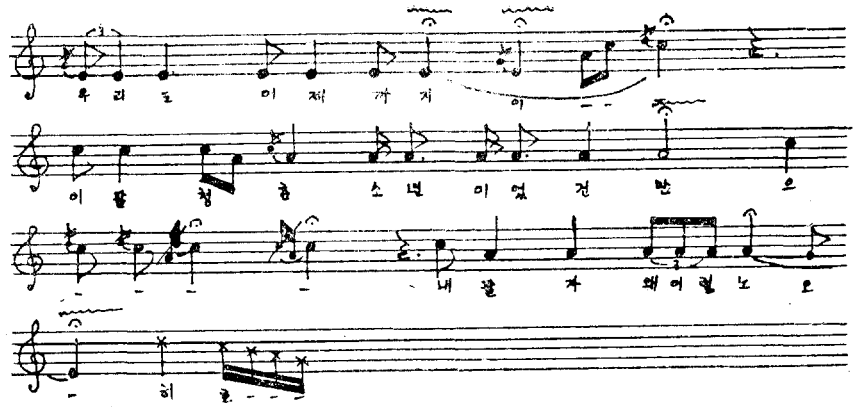


밀양군 어사용 2

박노적, 박문호 唱
백 일 형 採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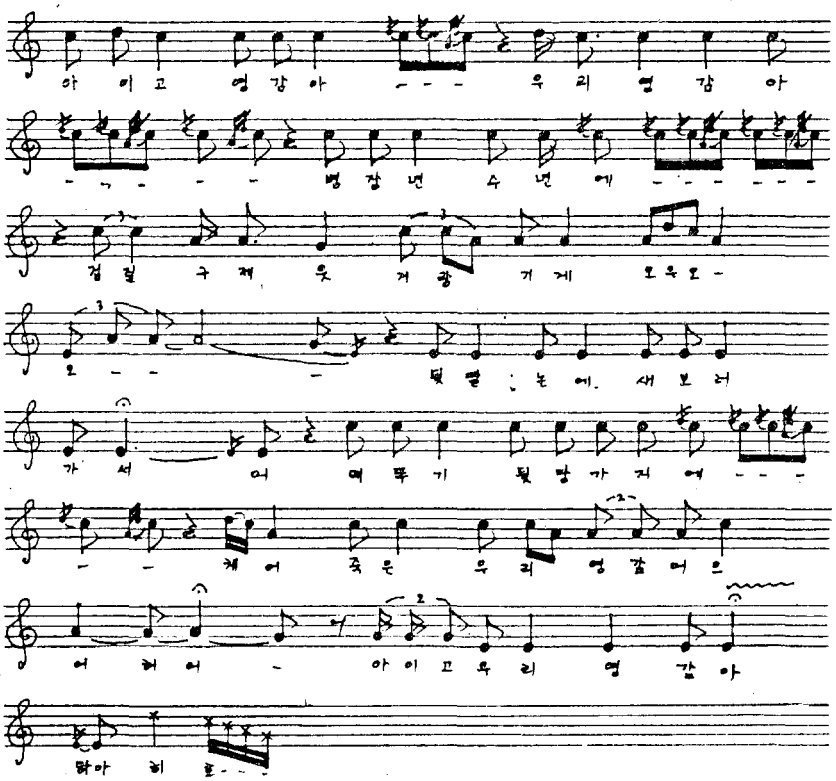
흙주우에 이 히 호 - - - 아 이 고 허 리 야
허 리 야 으 - - - -
허 리 아 파 못 살 겠 네 에 이 -
- - 남 날 젝 엔 나 도 나 고 오
- - - - - - - - 내 날 적 엔 남
이 날 네 이 - - - - - 내
팔 자 으 - - 왜 이 렇
노 오 - - - - 히 호 - - -
이 팔 청 춘 우 - - - 운
소 년 들 아 - - - - - -
- - - 백 발 노 인 웃 지 다
라 오 - - - - 아 이 고 허 리 야





밀양군 어사용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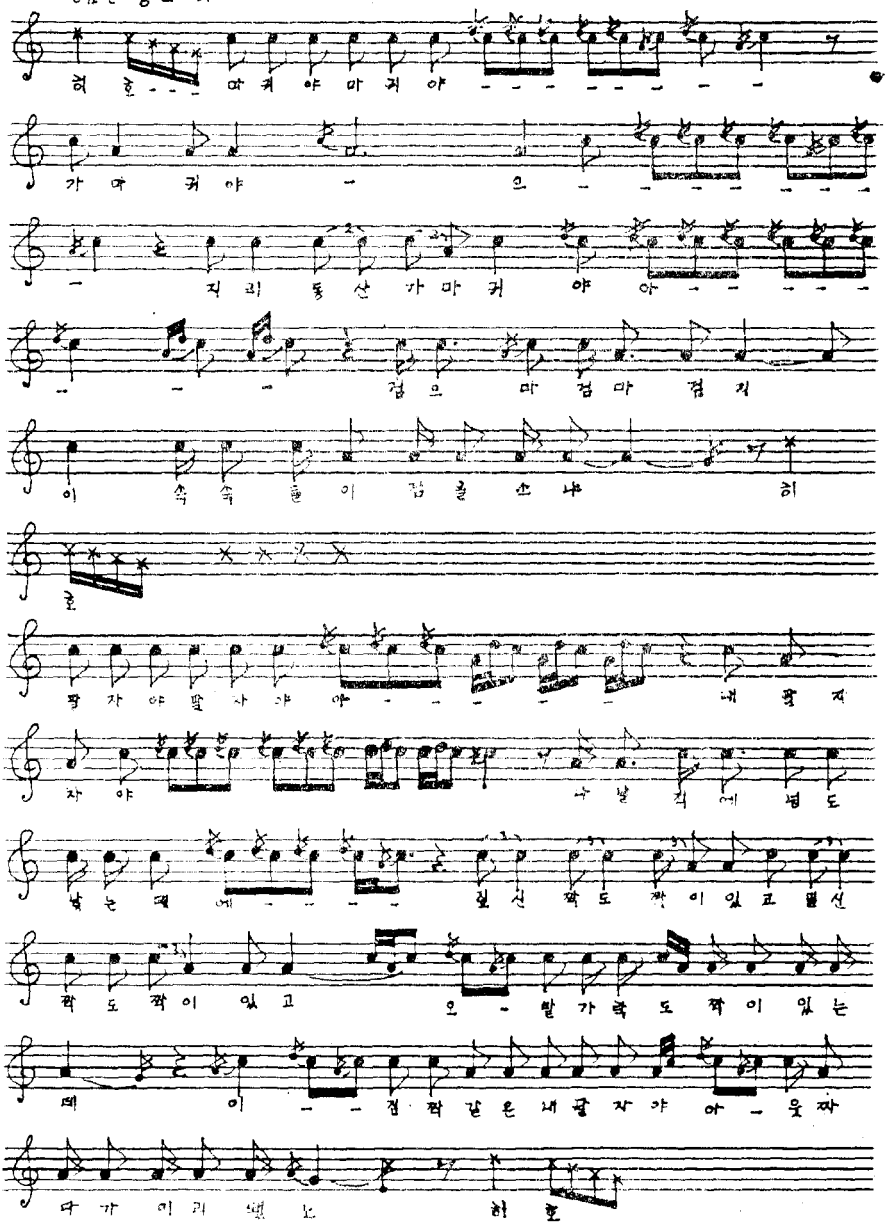
김 상 용 唱
백 일 헌 採譜



밀양군 어사용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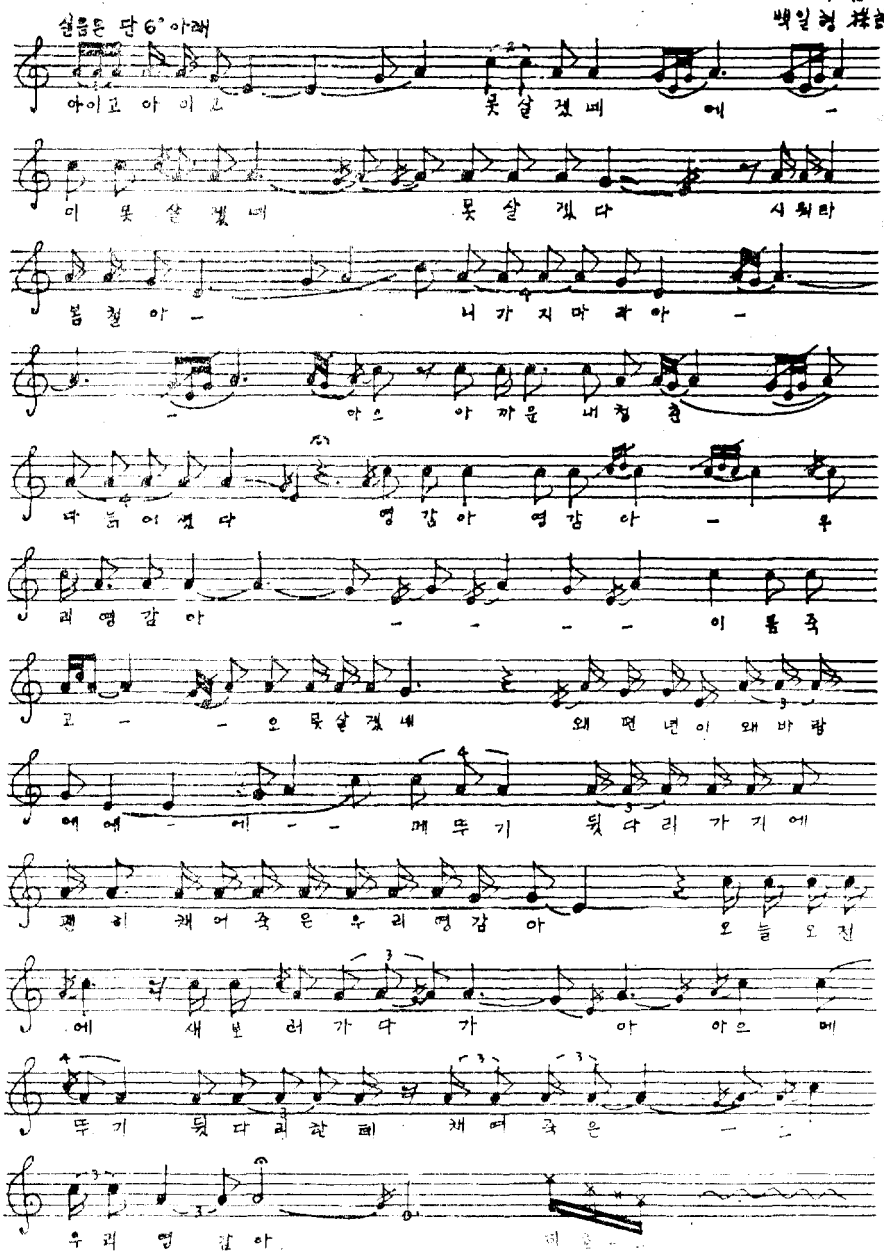
백 일 형 採譜

실음은 장고 위



밀양군 어사용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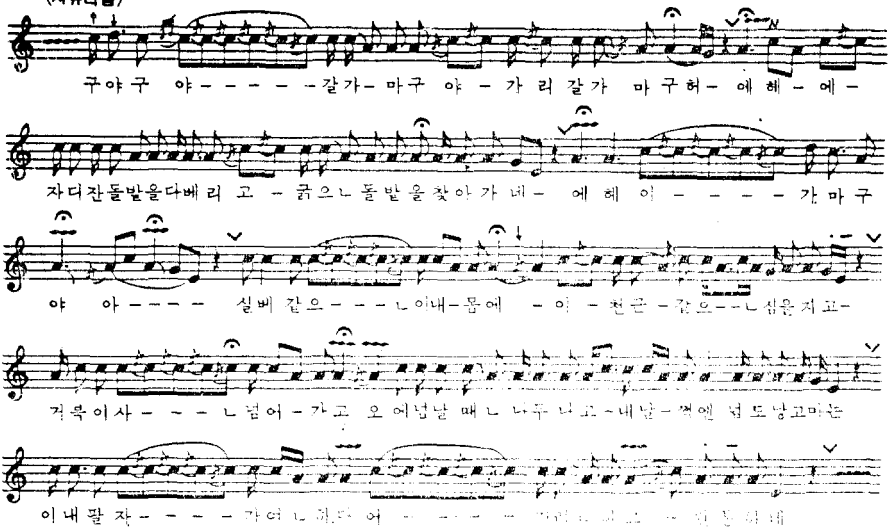
민학덕 탭
백일형 採譜



울주군 어사용 1

①유인명. 남. 84세.
농소면 맹천리.
②이보형. 84. 9. 18.
농소면 호계리.

♪=ca 152
실음은 완전 4도 낮음
〈자유리듬〉



구야구 야 - - - - - 갈가 - 마구 야 - 가 리 갈가 마 구허 - 에 헤 - 에 -

자디잔돌밭을다베리 고 - 굵으ㄴ돌밭을찾아 가 네 - 에 헤 이 - - - - 가 마 구

야 아 - - - - 실베 같으 - - - ㄴ이내 - 몸에 - 이 - 천근 - 같으 - - ㄴ심을지고 -

거북이사 - - - ㄴ넘어 - 가고 오 에넘날 때ㄴ 나두 나고 - 내날 - 쩍엔 넘도낭고마는

이내팔 자 - - - - 가여ㄴ하다 어 - - - - [illegible]

울주군 어사용 1-1

〈울주군 어사용1의 뒷부분〉

유인명사 맵
백일형 [illegible]

실음은 완전 4°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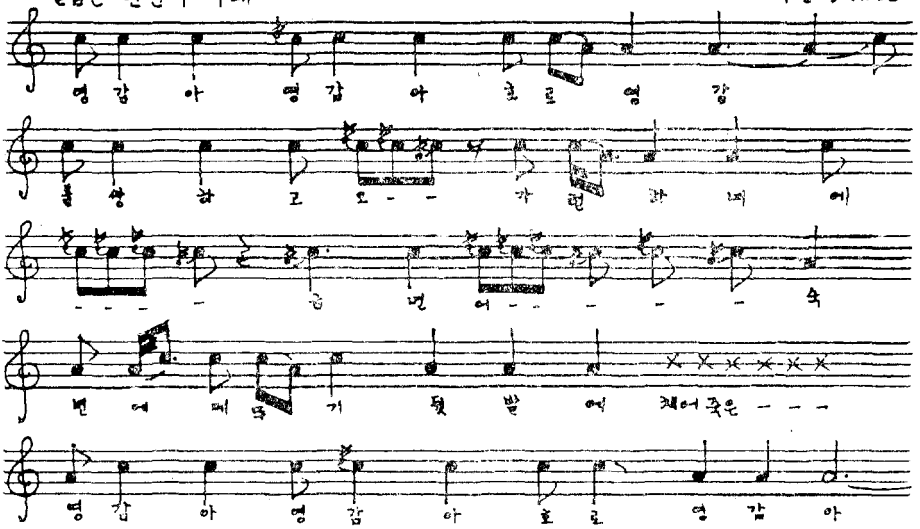
영 감 아 영 감 아 호 로 영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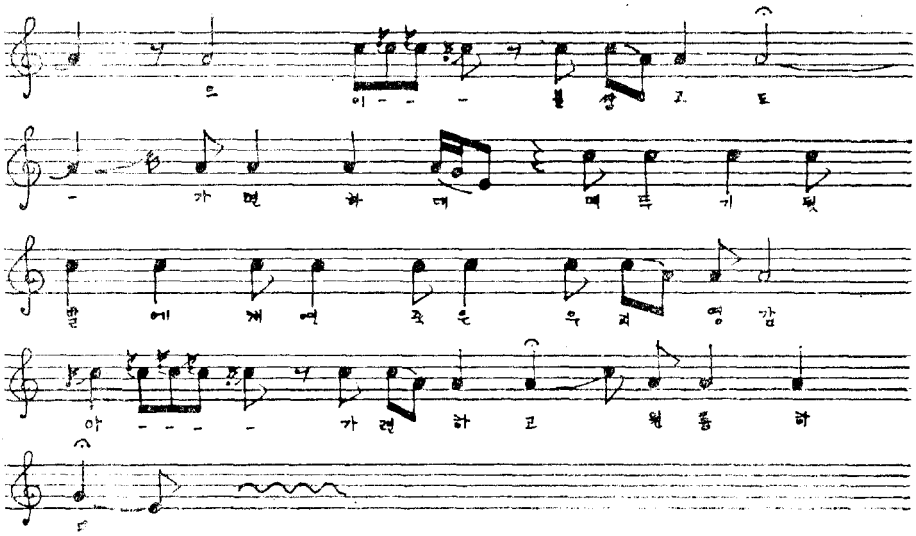
불 쌍 하 고 오 - - 가 런 하 네 에

- - - - 금 번 어 - - - - - 숙

번 에 메 뚜 기 뒷 발 에 채어 죽은 - - -

영 감 아 영 감 아 호 로 영 감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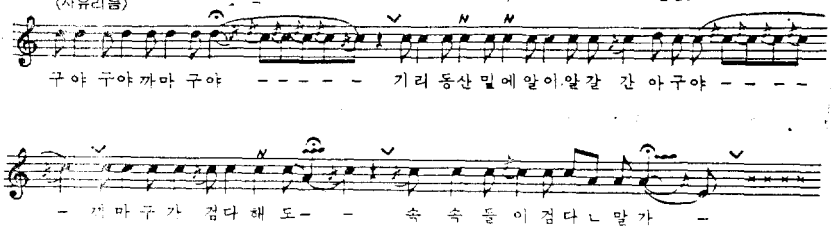




양산군 어사용

①이학선. 남. 77세.
상북면 석계리.
②권오성. 84. 2. 29.
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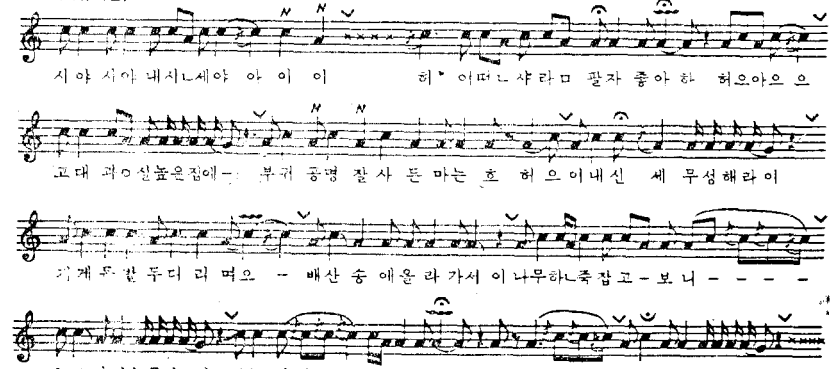
♪=192
실음은 단3도 낮음
(자유리듬)



김해군 어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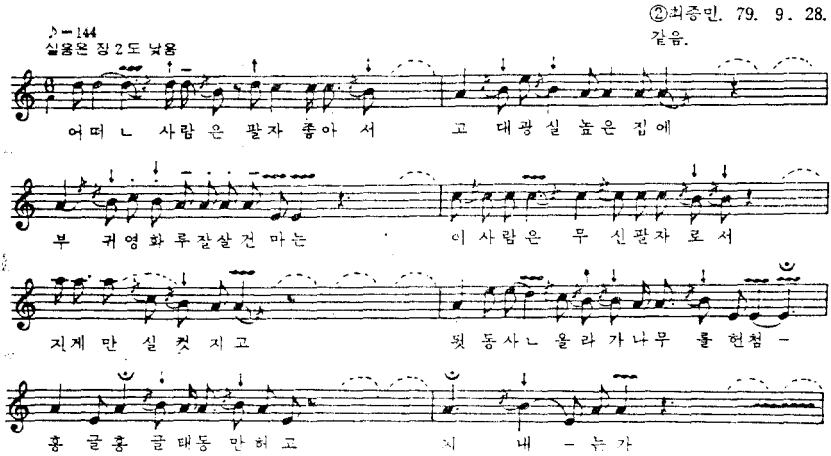
①서진찬. 남.
상동면 우계리.
②권오성. 82. 7. 28.
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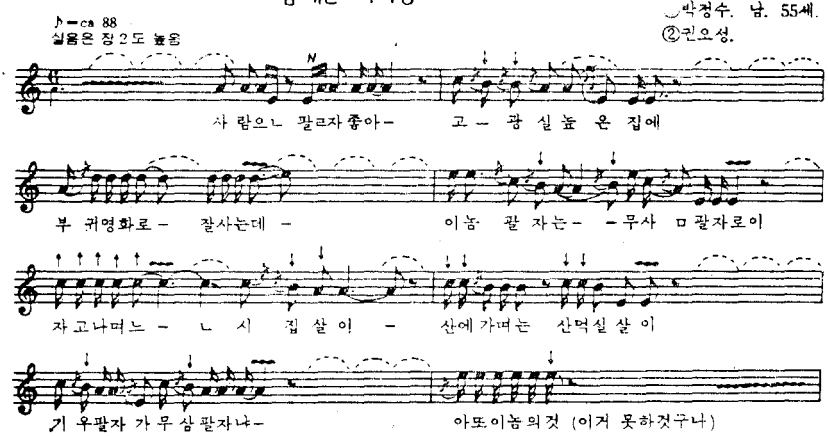
♪=208
실음은 완전 4도 높음
(자유리듬)



하동군 어사용

①윤태범. 남. 67세.
화개면 용강리.
②최종민. 79. 9. 28.
같음.



남해군 어사용

박정수. 남. 55세.
②권오성.